

금정 옛길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수립

## 연구보고서

2019.9.23

지식문화콘텐츠연구소(주)리멘 / 스토리랩 수작





## 목차

### I. 과업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 II. 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여건  
관련 추진사업

### III. 길과 도로의 역사

길과도로  
부산의 길의 역사  
금정구의 길의 역사와 자취  
인접 옛길과의 연계

### IV.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기본개념

스토리텔링  
생태관광  
무대화 ( Mise en tourism )

### V. 금정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기본전략

금정 웰빙 100리길  
5대코스



## VI. 금정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1. 하정마을 역촌복원 프로젝트
2. 기찰 CIQ 체험관 조성
3. 금정 옛길 스무고개 스토리북
4. 금정 웰빙 100리길 이야기지도
5. 금정 역사인물 웹툰북
6. 금어동천 이야기 페스티벌
7. 금정 비석역사기행
8. 금정 종교문화기행
9. 금정 옛길 아카데미
10. 금정 옛길 박람회

## VII. 금정 옛길의 홍보·마케팅 전략

마케팅과 지역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 전략  
지역 마케팅을 위한 매체 활용  
지역 마케팅 및 매체 활용 사례

## VIII. 요약 및 정책 제언



## 과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 1) 과업 개요

#### 과업명

옛길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영역

#### 추진배경

한 도시의 길은 그대로 그 도시의 역사가 된다. 도시의 옛길과 근대길, 현대길, 테마길 등 모든 길들은 그 도시가 걸어온 발자취요 오늘을 있게 한 축선(軸線)이면서 노정(路程)이다. 이는 도시의 역사와 생활사, 문화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길은 '부산학(釜山學)' 또는 지역학을 연구할 때도 길은 놓쳐서는 안 될 문화원형이다. 21세기는 길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자원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 추진목적

잠자거나 혹은 사장돼 있는 금정구의 옛길 자원을 깨워 의미를 깨거나 스토리를 발굴해 문화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옛길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문화 탐방로를 개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및 상품을 개발하여 금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과업의 목적이다.

#### 과업기간

2019.3.1~9.30

#### 과업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황산도 옛길, 금정산성 옛길, 범어사 옛길 등

②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사업기간: 2019 ~ 2023년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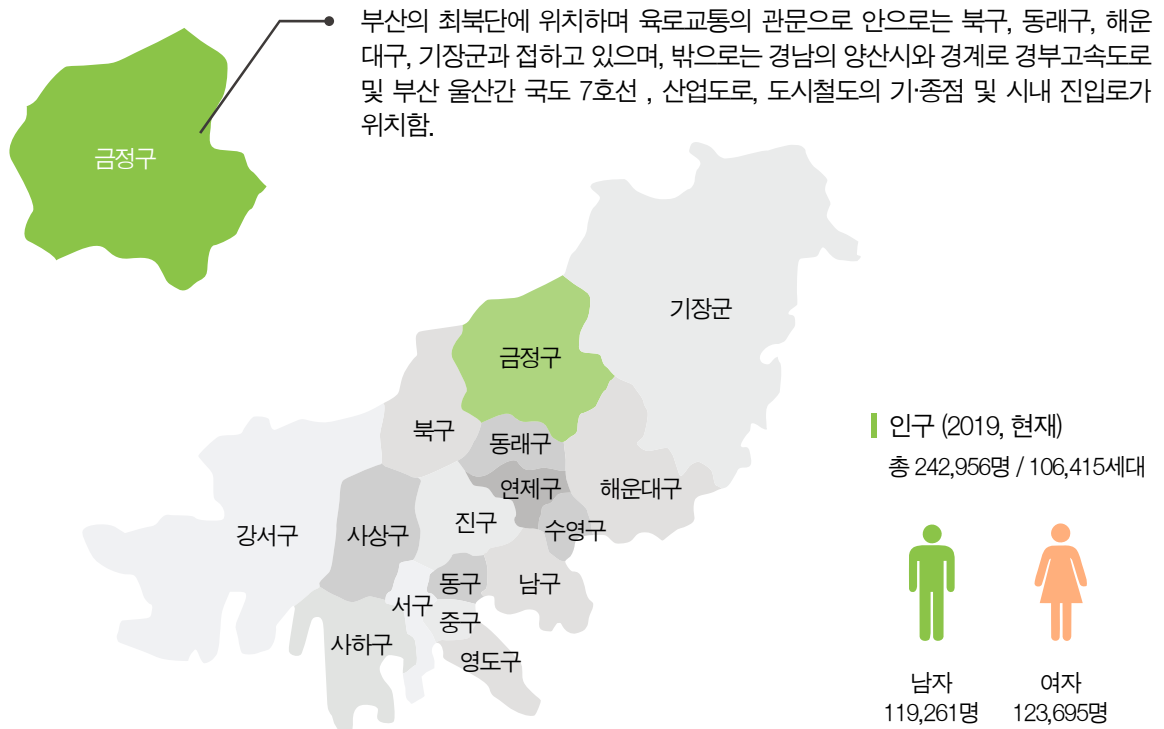
③ 내용적 범위

- 옛길 자원의 조사 및 정리
- 옛길 자원의 스토리 발굴
- 옛길 자원의 관광콘텐츠화 방안
- 옛길 자원의 홍보 마케팅 전략
- 사업추진 방안

## 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 여건

### 1) 지역 현황/보행길 및 도로 현황



면적  
65.18 km<sup>2</sup> (부산시의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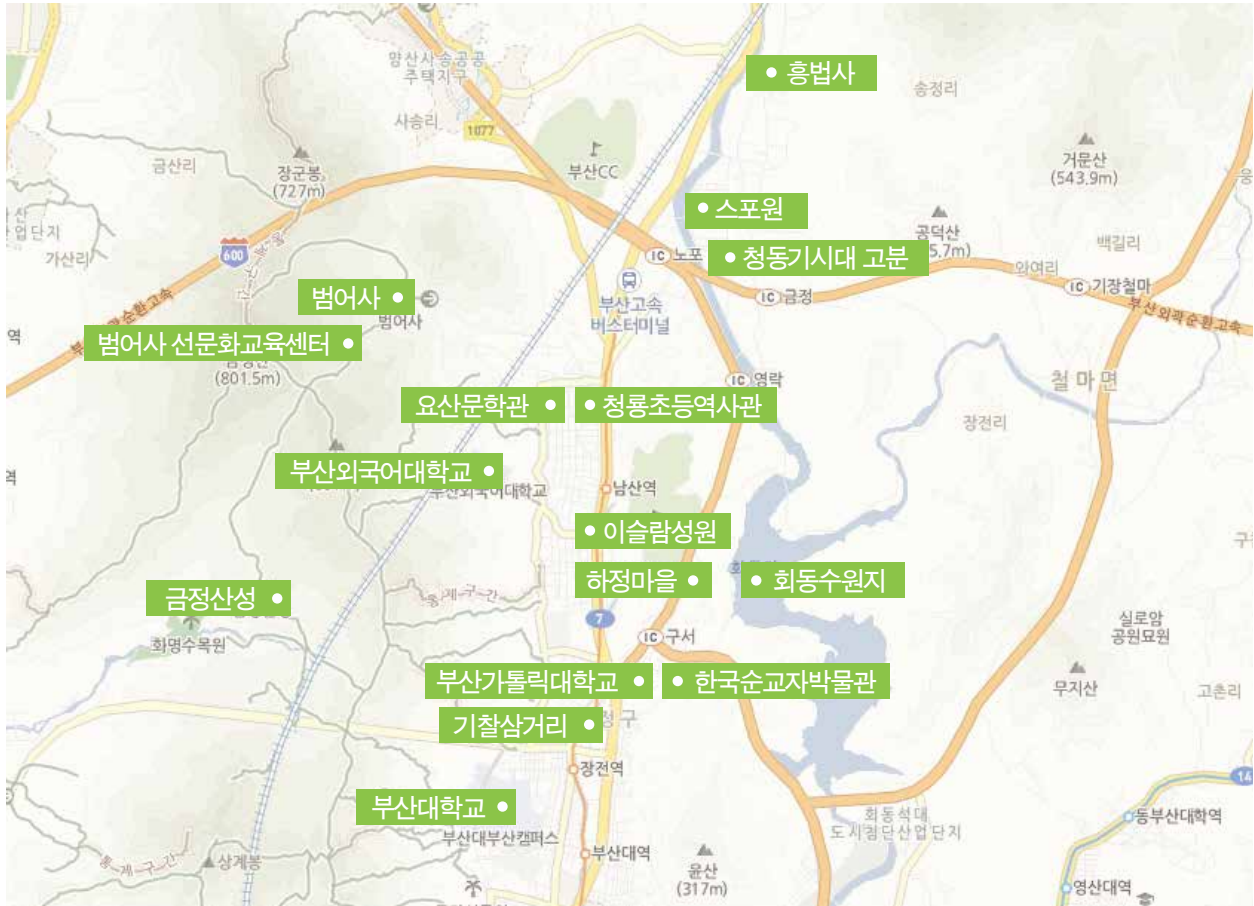
#### 기반시설

도로	237.54km (도로율 25.32%)
자동차	88,433대(승용 70,352, 승합 3,687, 화물 13,721, 특수 673)
주차시설	86,370면 (보급률 97.6%)
상수도	26,289전 (보급률 100%)
공원·유원지	62개소 (어린이 41, 소공원 16, 근린 3, 묘지 1, 유원지 1)
제조업체	421개소 (기계정비 96, 섬유 의복 86, 전기전자 85, 금속화학 등 154)
농경지	275ha(농가 762호 : 화훼 115, 채소 585, 축산 39, 기타 23)

#### 주요시설

학교	55개소 (초 23, 중 12, 고 16, 대학교 4)
문화재	110점 (국가지정 16, 시지정 94)
복지	393개소 (생활시설 31, 이용시설 293, 기타 69)
의료, 의약	1,066개소 (병원 33, 의원 309, 약국 104, 기타 620)

## ■ 2) 지역 자산 및 잠재력 분석



범어사



요산문화관



청룡초등학교



스포원



회동수원지



이슬람성원



금정산성



흥법사



한국순교자박물관

## 사업 대상지 여건 분석

# 관련 추진 사업

### 1)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배경			주안점
		계	국비	지방비	
금정산성 역사문화탐방로 정비	금정산성 서문~고당봉 구간 정비 L = 3,800m	1,990	1,393	597	추진중
범어사 성보관 건립사업	A=2,970m(1개동 지하2층, 지상2층)	12,544	6,272	6,272	추진중
두구동 연꽃소류지 꽃두레길 여가복지 조성	황토포장(꽃길)조성 L=300m, B=2m	300	270	30	추진중
오륜동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1식 L=2,300m	1,111	1,000	111	추진중
오륜동 본동마을 진입도로 확장	L=574m B=5~7m → 10m	1,950		1,950	추진중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공사	A=2,880m(2개동 2층)	7,000	2,100	2,100	추진중
노포동고분군 정비사업	A=19,578m	294		294	추진중
회동수원지 누리 길 조성사업	보행교량 2개소 L=292m, B=1.5m 산책로 L=400m, B=2m	6,200	5,600	600	추진중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A=4,500m (주차면 160면)	2,580	2,322	258	추진중
선동 상현마을-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L=2,184m, B=12m	14,000	12,600	1,400	추진중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	A=499m(1개동 2층)	2,500	1,500	625	추진중



## 길과 도로의 역사

# 길과 도로

### 1) 지역학의 토대

사람은 길을 만드는 주체, 길 위의 존재이다. 긴 수상생활을 끝내고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된 인류는 두 발로 서서 걸거나 뛰면서 새로운 생활방식을 터득했다. 직립 보행의 시작이다.

한 도시의 길은 그대로 그 도시의 역사가 된다. 도시의 옛길과 근대길, 현대길, 테마길 등 모든 길들은 그 도시가 걸어온 발자취요 오늘을 있게 한 축선(軸線)이면서 노정(路程)이다. 이는 도시의 역사와 생활사, 문화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길은 '부산학(釜山學)' 또는 지역학을 연구할 때도 길은 놓쳐서는 안 될 문화원형이다.



### 2) 길과 도로

길은 한자로 가(街), 경(經), 진(鎭), 도(途) 도(道), 로(路), 정(程)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과 물자의 일정 이동을 의미한다. 『주례』에 따르면 경(經)은 우마가 다닐 수 있는 오솔길, 진(鎭)은 대거(大車)가 다닐 수 있는 소로, 도(途)는 승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도(道)는 승차 두 대, 로(路)는 승차 세 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다.

조선초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와 로의 명확한 구분 없이 길의 중요도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라 하고, 도로와 길은 같은 개념으로 인식했다.

길과 도로는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의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군사 이동로로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었다.

‘도로’의 사전적 정의는 ‘차나 우마 및 사람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일정한 너비로 뾰은 땅 위의 선’이다. 우리 나라의 ‘도로법’에서는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그 공작물까지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목적	배경	지향	주안점
길	걷기 위한 수단, 목적지에 이르는 노정	자연발생적	삶과 인생, 철학	소통 / 관계
도로	자동차와 산업, 경제를 위해 만든것	인위적, 개발의 산물	산업, 경쟁, 과학	속도 / 일

### ■ 3) 조선시대의 도로

조선시대 역도(驛道)는 고려의 역제를 계승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재편성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1394년(태조 3) 9월,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등은 한양 천도에 따른 새로운 도성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터를 정한다. 건국 초기 개경 환도·한양 재천도가 이뤄지면서 도로 정비가 지체되기도 했으나, 태종대에 이르면 도로 제도의 틀이 구축된다.

1407년(태종7) 4월, 한성부는 5부 각 방의 이름과 교량 및 거리의 이름을 정하고, 성안의 큰 길 이외에 동네의 도로까지도 평평하게 해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1414년(태종 14) 10월에는 도로의 거리에 따라 후자(子)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10리마다 소후(小), 30리마다 대후(大), 그리고 5리마다 '오리정(五里亭)'을 세워 길손들을 쉬어가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도로를 대로, 중로, 소로 3등급으로 나누었다. 기준은 노폭이었다. 폭이 12보 이상이면 대로, 6보 이하는 소로, 그 중간으로 9보쯤 되는 길은 중로라 했다. 이 밖에도 수레와 인마가 어느 정도 왕래하느냐에 따라 등급을 정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대로,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중로, 평양에서 의주까지는 소로로 규정했다. 지방 도로망은 중앙과 지방 군현의 치소 사이, 군현과 군현 또는 감영, 병영 및 수영 외에 진보 등과의 상호 연락과 사행(使行) 및 온행(溫幸) 국왕이 온천을 왕래하는 일) 그리고 물자수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중요 도로망은 9대로(증보문헌비고), 10대로(대동지지), 6대로(도로고)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신경준의 『도로고』에 의한 6대로의 편제가 널리 인용되었다. 제1로 의주로(義州路, 경성의 흥제원~의주), 제2로 경흥로(慶興路, 수유리점~서수라보), 제3로 평해로(平海路, 망우리현~평해), 제4로 동래로(東萊路, 한강~동래 부산진), 제5로 제주로(濟州路, 동작진~제주), 제6로 강화로(江華路, 양화도~강화부)이다.

동래로는 서울에서 동래읍성을 거쳐 부산진까지 이어졌다. 이 길을 영남에서는 황산도(黃山道)라 불렀다.



## 길과 도로의 역사

# 부산의 길의 역사

### ■ 1) 고대 ~ 고려시대

부산의 길은 부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부산의 고대는 청동기·철기의 도래와 함께 서막이 열린다. 문헌에 등장하는 고대 부산은 거칠산국(居漆山國), 내산국(萊山國), 장산국(山國) 등으로 표기되는 부족집단 또는 소국이다.

고대 부산을 말해주는 주요 유적으로는 4세기대의 동래 패총과 4~6세기대의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이 있다. 복천동 고분을 만든 세력은 낙동강 건너 가락국(금관가야) 세력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연산동 고분군은 거칠산국의 지배자, 또는 신라계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고대 길은 이들 부족집단과 소국의 성장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교통로로서 기능했을 것 같다. 아쉽게도 고대의 옛길을 증언하는 유적은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발굴 조사된 신라시대 도로 유구 정도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변방이었던 부산(동래)은 국방상 전략 요충지, 대일 무역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중앙과의 교통로가 발달한다.

### ■ 2) 조선시대

조선시대 전국의 도로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6대로(大路), 9대로(大路)가 뻗어 있었다. 그 중 부산은 영남대로(嶺南大路, 동래로)를 통해 한양과 이어졌다. 영남대로에는 다시 좌도, 중도, 우도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중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중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다. 이 길은 동래에서 시작하여 양산-삼랑진-밀양-청도-대구-선산-상주-조령(문경새재)-충주-용인을 거쳐 14~15일이면 한양에 닿았다.

부산에서 밀양에 이르는 구간은 '황산도(黃山道)'라고 했으며, 조선시대 1등급 도로로 분류되었다. 조선시대의 대로들은 요소 요소에 역참을 두었는데, 황산도는 그 중심 역이었던 양산의 황산역(黃山驛)에서 따온 이름이다.

황산도는 동래 휴산역(休山驛)에서 밀양 무흘역(無訖驛)까지 이어졌다. 황산역의 속역은 모두 16개 역이었다. 역명을 보면 ①유산역(由山驛) 혹은 윤산역(輪山驛) ②위천역(渭川驛) ③덕천역(德泉驛) 혹은 덕천역(德川驛) ④잉보역(仍浦驛) 혹은 잉포역(仍浦驛) ⑤노곡역(蘆谷驛) 혹은 노곡역(奴谷驛) ⑥굴화역(掘火驛) 혹은 굴화역(堀火驛) ⑦간곡역(肝谷驛) ⑧아월역(阿月驛) 혹은 하월역(河月驛) ⑨신명역(新明驛) ⑩소산역(蘇山驛) ⑪휴산역(休山驛) ⑫수안역(水安驛) ⑬용가역(龍駕驛) ⑭덕산역(德山驛) ⑮무흘역(無訖驛)·금동역(金洞驛) 등이다.

이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양산군(梁山郡)>의 기록과 비교하면 수안역·용가역·덕산역·무흘역·금동역까지 5개 역이 늘어나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음을 말한다.

황산역의 우두머리는 중6품 벼슬인 찰방(察訪)으로, 간선 도로상의 역참들을 관리했다. 찰방은 암행어사를 보필하는 등 위세가 대단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국고만 축내는 역참이 늘어 국가적 골칫거리가 된다.

#### 황산도의 주요역참들

역참제가 확립되는 고려시대 부산 지역에는 금주(金州, 김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주도(金州道) 소속의 소산역(蘇山驛, 동래현 소재)과 아등량역(阿等良驛)·기장역(機張驛, 이상 기장현 소재)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양산의 황산역을 중심으로 한 황산도(黃山道)에 속했는데, 기존의 역참시설에 휴산역(休山驛, 동래현)이 추가되고, 아등량역은 아월역(阿月驛)으로, 기장역은 신명역(新明驛)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조선시대 동래 도호부에서 출발하는 영남대로는 동래읍성 남쪽의 휴산역에서 시작하여 소산역을 거친 다음 양산에서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서북 방면으로 나아가 한양에 이른다. 기장현에 있던 아월역은 양산 경계와 울산의 간곡역(肝谷驛)을 경유하는 동래~울산의 교통로상에 위치한 역참이었고, 신명역은 동래~기장 간 역로상의 역참 시설이었다.

조선 전기부터 부산 지역에는 이들 역참 이외에도 원(院) 시설이 존재했다. 낙동강 하구의 사천원(沙川院)과 동래 온천의 온정원(溫井院), 동래부 북쪽 15리 지점의 연수원(彦樹院)이 그것이다. 사천원은 낙동강 하구의 수운과

결합된 교통 시설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장현에는 모이현원(毛伊峴院)과 평안원(平安院)이란 원이 있었고, 기장~울산 간 교통로상에는 이을포원(伊乙浦院)이 자리했다. 기존의 간선 교통로와 연계된 지선 도로망이 함께 발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휴산역과 소산역은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오늘날 그 존재조차 잊혀져 있다. 휴산역은 동래로 (영남대로)의 사종착지로서 수군 병영이 있던 경상좌수영(수영사적공원 일대)으로 가거나, 기장이나 해운대 쪽으로 가려할 때 거쳐야 하는 요충지였다.



### ■ 3) 일제강점기

일제는 그들의 대륙침략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을 식민도시로 건설하면서 철도와 도로를 뚫는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왜관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형성되면서 기존 왜관의 동관과 서관을 잇던 길은 서서히 변화가로 발전한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 10만여 평을 차지하고 들어섰던 초량왜관은 오늘날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 서구의 원형을 이룬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京釜線)은 한반도의 길과 물류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총 길이 441.7km의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고 대전, 천안, 대구를 경유하는 한국철도의 중추 노선이다. 경부선의 상당 구간은 기존 영남대로 옛길 위에 건설되어 옛길의 자취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부선이 개통되자 일제는 준비한 듯 배를 띄웠다. 1905년 9월 11일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연결하는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이 취항했다. 경부철도와 일본철도를 연결하는 연대 운수가 개시된 것이다.

육로와 해로를 차례로 열어젖힌 일제는 부산을 대륙 침략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부산항 매립사업에 들어갔다. 부산항 매축은 1898년 일제 자본인 '부산매축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지금의 중앙동에 있는 부산데파르트로부터 옛 부산역(현 정석빌딩 부근)과 부산우체국 그리고 세관 부지, 부산연안여객터미널, 중앙동의 중앙로 일대는 모두 매축된 지역이다.

국내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여들자 1920년대에 송도 윗길이 닦였고, 1939년 4월엔 부산~송도 간의 첫 관광도로가 뚫렸다. 비슷한 시기에 일제는 구덕로, 중앙로를 비롯해 오늘날 부산의 주요 간선로를 신작로란 이름으로 개설했다. 구불구불한 길들이 펴지거나 확장되었고, 길위로 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부산항이 매립되는 과정에서 중앙대로가 뚫려 원도심과 연제, 동래, 금정구가 간선도로로 연결되었다.

### ■ 4) 근·현대 부산의 길

영남 대로의 터전 위에 근대 철도와 전차길, 신작로를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부산은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근대를 빠져나온다. 광복으로 귀환 동포들이 부산을 통해 대거 귀국하고, 이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란민이 부산으로 모여들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에서 급작스럽게 모여든 사람들은 산자락을 파고들어 집을 지었다. 부산의 곳곳에 산동네가 형성되었고, '산 허리의 경사지를 도는' 산복(山腹)도로가 생겨났다. 산복도로가 처음 놓인 것은 1964년 10월 17일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가 개통되면서다. 1969년에 이 길이 이웃 동네인 수정동과 연결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인 망양로(望洋路)가

형성됐다.

이후 산동네가 많은 부산에는 해돋이길, 시약산길, 영도 산복도로, 전포동 산복도로 등 곳곳에 산복도로가 생겨났다. 동천을 찢줄로 한 서면 일대에서 도시화 산업화의 기지개를 켜 부산은 스스로의 힘으로 현대로 진입하는 길을 열어갔다.

1963년 1월 부산 직할시 승격은 도약의 새로운 전기였다. 인구 100만을 안은 부산은 마산 김해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시통팔달의 길을 뚫었고, 197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가는 해로를 열어나갔다.

부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간선 도로는 중앙대로다. 흔히 '중앙로'라고도 불리는 이 간선 도로는 일제가 부산항을 개발하기 위해 1900년 초부터 중앙동 일대를 매립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도로였다. 이후 1921~1927년에 초량·수정·좌천·범일동을 지나는 폭 5.4~10.9m, 총 연장 11.45km의 초량로가 개통되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현재 중앙 대로는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사거리에서 금정구를 거쳐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고가교 복단까지 이어진다.

중앙 대로는 다시 결절과 분기를 반복해 충장로, 충렬로, 망양로, 구덕로, 태종로, 범일로, 황령대로, 전포대로, 동성로, 동천로, 연제로, 월드컵대로, 반송로 등으로 확장된다.

중앙 대로는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도시의 팽창에 기여했고, 1950년대에는 전쟁 수행과 피란민 운송을 위한 군사도로로서 기능했으며, 6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로, 도시화 촉진의 도로로 기능했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는 부산항의 물류를 전국으로 실어나르는 핵심 물류 루트가 되었다.

부산의 길은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지고, 공간적으로 육·해·공 모두 열려 있으며, 지리적으로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결절점이고, 지정학적으로 나라의 관문이란 역할을 떠맡고 있다. 국내 어느 도시도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 중층적으로 품고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sup>1)</sup>

---

1) '길의 역사' 및 '부산의 길' 항목은 2017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시행한 '부산의 길' 연구용역 보고서를 주로 인용하였음.

## 길과 도로의 역사

# 금정구 길의 역사와 자취

### ■ 1) 황산도와 그 지선들

동래읍성 앞 휴산역에서 시작되는 황산도는 부산시 권역에서 대부분 금정구 지역을 경유한다. 부곡동의 공수물공원, 십휴정 기찰, 옛 소산역이 자리했던 하정마을, 지경고개 등에 비석이나 지명 등 부분적으로 자취가 남아 있다.

황산도는 도시철도 범어사역 인근의 팔송초소 부근에서 양산 가는 길과 울산 가는 길로 나뉘며, 울산 가는 길은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다시 양산 길과 기장 길로 연결된다.

동래 금정 지역의 황산도는 동래읍성 바깥의 휴산역(낙민초등학교 추정)에서 세병교를 건너 부산진 가는 길과 이섭교를 건너 좌수영 가는 길로 이어졌다.

위 황산도를 메인 노선이라 한다면, 온정길(온천장), 범어사 옛길, 금정산성 가는 길, 오륜대 가는 길 등은 지선이라 할 수 있다. 메인 노선과 지선은 유기적으로 얹혀 시대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다소 달리했다.

금정구 지역 황산도에는 각종 비석과 금석문, 지명, 설화, 그리고 곳곳에 고분군이 남아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한 옛길 스토리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 ■ 2) 고분군을 통한 옛길 찾기

금정구 권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삶의 자취를 알 수 있는 다수의 고분군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고분은 노포동 유적(청동기~삼한시대), 구서동 유적(삼한시대), 오륜대 유적(철기~삼국시대), 대룡 석관묘, 두구동 유적(삼국시대), 회동동 고분(고대~삼국시대) 등이다.

고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옛길이 있었다는 것이니, ‘고분기행’을 통해 옛길을 찾는 이색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분에 대한 정비나 개발이 안돼 접근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 ■ 3) 역사자원의 보고 금정산성

부산의 진산 금정산은 부산의 자랑이요, 금정구의 보배같은 산이다. 수려한 산세와 수석 박물관을 방불케하는 기암괴석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축성역사, 문화재적 가치 등으로 볼 때 부산 최고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한다.

금정산성은 공식 성곽 둘레만 17.7km이며, 동서남북 4대 문과 4곳의 망루를 따라 일주가 가능하다. 이것을 역사문화 교육자원 또는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도 있다.

### ■ 4) 부산의 육상관문(만남의 광장)

금정구 길의 역사는 많은 부분이 부득히 동래 역사와 중첩된다(1992년 9월 분구). 그러나 황산도의 자취는 대부분 금정구에 남아 있어, 역사성 확보는 물론 역사 관광자원 개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금정구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열린 것을 시발로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부산외곽 순환도로 등 중요한 도로 시설을 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구서 톨게이트 바로 옆으로 황산도가 지나갔으니 과거와 현재 길이 동행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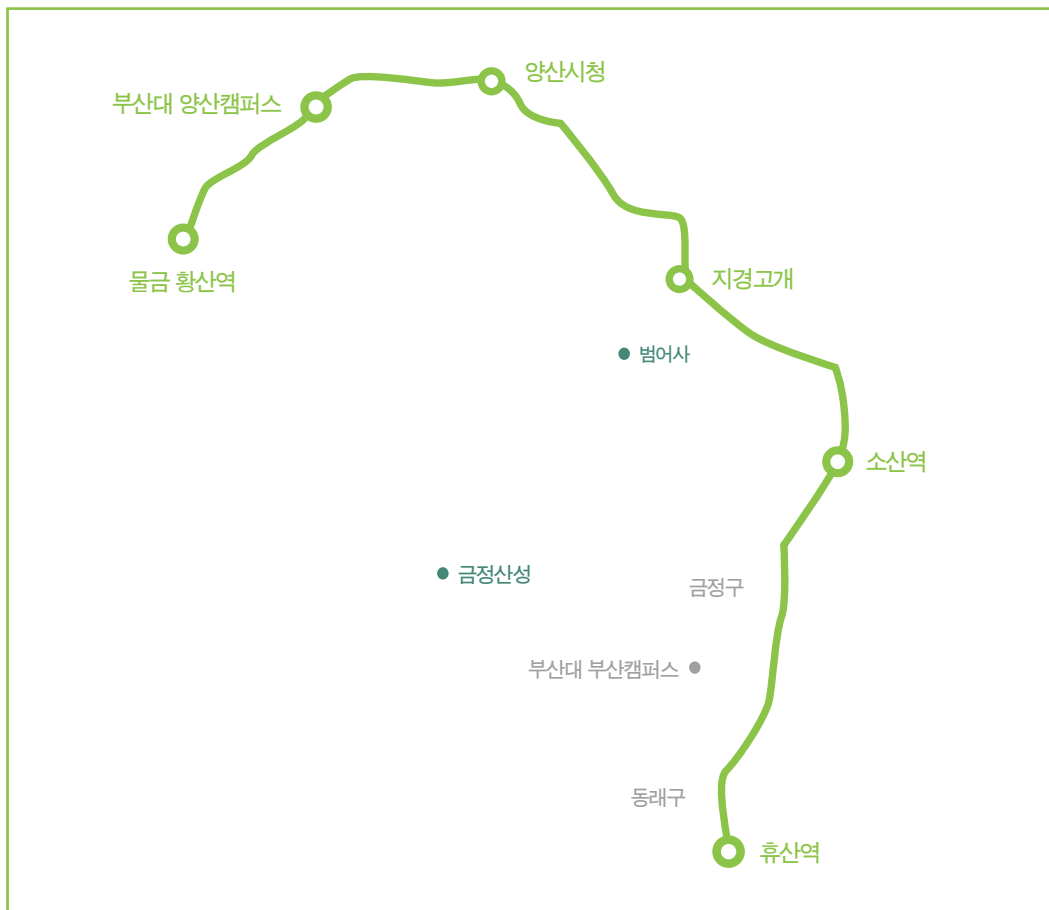
특히 구서동 ‘만남의 광장’은 조선시대때 역참에 식량을 공급하는 역들이 있었던 곳이고, 오늘날 경부고속도로의 시·중착점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다.

## 길과 도로의 역사

# 인접지역 옛길과의 연계

연계성을 갖는 곳은 ▲황산도 동래 구간(동래구, 양산시, 울산시) ▲선동길 구간(기장군) ▲금정산성 구간(북구) 등이다. 이황산도는 양산 물금에 황산찰방역을 두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짰다. 양산 유산역(由山驛, 양산시 유산리 구터)을 경유하면 동래 소산역(蘇山驛, 금정구 하정 마을)에 닿았고, 기장군의 아월역(阿月驛, 정관읍 월평리)을 통하면 양산은 물론 북쪽의 간곡역(肝谷驛), 굴화역(屈火驛)을 거쳐 울산으로 연결됐다.

황산도 시·종착 개념의 확장 및 광역 루트 개발 차원에서 황산도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고 연계성을 찾으려면 개별 지역 연구에서 광역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 ■ 황산도 대표적 연계 코스

- 개요 : 황산도의 기종착지인 동래 휴산역(오늘날 낙민초등학교 일대 추정)에서 출발하여 동래읍성 대낮들이길, 금정구 부곡동 공수물 공원~기찰~소산역~지경고개~양산 영대교~물금 황산역까지 이어진 조선시대 대표적 관로를 따라가는 길.
- 총 길이: 약 26km(도보 약 8시간 소요)
- 과제: 조선시대 대표 관로인 황산도의 역사성을 살리고 단절되다시피한 지역(지자체)간 연계 구간을 이어 전체 맥락 속에서 광역 콘텐츠화 해야 함(문체부, 부산시, 경남도 공동 논의 필요)



## 금정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기본개념

# 스토리텔링·생태관광·무대(舞臺)화

### ■ 1) 스토리텔링

#### ■ 스토리의 개념

- 스토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를 잡아 구사하는 말이나 글을 뜻하며, 사실이고 허구일 수 있다.
- 스토리는 신화, 전설, 우화처럼 말로 시작되었으나,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동화나 소설 같은 글이나 만화 같은 그림으로 진화 발전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과 같은 영상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story)+나누기(telling)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지닌 모든 서사 장르를 의미한다. 원래 문학용어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혹은 '구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건과 사물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닌 사물이나 인물이 가져다주는 개인적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지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 ■ 스토리 자원의 분류

스토리자원의 분류는 크게 '문화원형자원'과 '문화활용자원'으로 분류한다. 문화원형자원은 관광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소재로 문화, 자연자원을 말하고 문화활용자원은 만들어진 스토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로 산업 자원과 관광장소, 시설자원 등이 있다.

#### ■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 스토리가 없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
- 스토리 자체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관광객에게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므로 스토리와 관광지와의 연결을 통한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관광스토리텔링 창출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장소에 결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 스토리텔링의 3단계

##### STEP 1

1단계는 각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이다. 전설, 민담, 노래, 소리, 환경, 문화, 정신, 인물 등 실체가 있는 사물과 추상적 개념을 막론하고 세밀하고 성실하게 수집하는 작업이다.

##### STEP 2

2단계는 수집된 각각의 콘텐츠를 개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상품으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책부터 시작해서 영상물, 게임, 캐릭터, 판촉물,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 STEP 3

3단계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융합되어 새로운 이미지가 구축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여 선순환의 고리를 갖게 되는 단계이다.



## ■ 스토리북

스토리텔링의 핵심 기초 작업으로서 관광대상지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일반에게는 대상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창작자들에게는 2차, 3차 창작물의 원천소스를 제공한다.

## ■ 금정옛길의 스토리텔링

- 점과 점이 선으로 연결되어 길이 되듯이 금정 옛길 곳곳의 점이 되는 상징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금정옛길의 경우 비석, 석각, 인물, 역사적 장소 등이 스토리의 주요 자원이 된다.
- 금어동천석각을 비롯 각종 비석, 기찰을 비롯한 주요 장소 및 공간, 조엄을 비롯한 비석에 등장하는 역사인물, 소산 역 전투와 같은 역사적 사실 등 다양한 이야기 자원 활용 가능하다.

## ■ 2) 생태관광

### ■ 생태관광의 개념과 중요성

- 자연환경 자체를 최고의 관광매력물로 삼는 관광형태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이며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그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생태관광(Eco-tourism)이 부각되고 있고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 생태관광 특성

- ① 지역고유성 확보
- ② 환경친화적 활용
- ③ 주민참여의 기회

### ■ 생태관광 형태

- ① 체험관광 : 관광지의 자연상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 강하다.
- ② 학습관광 : 관광지의 생태학적 특성, 역사,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욕구 강하다.

### ■ 금정옛길과 생태관광

- 금정구 옛길의 상황은 각 코스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금어천년옛길의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생태관광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상태가 양호하지만 기찰테마길의 경우는 옛길의 자취가 없고 일반도로로서 생태관광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바로 인접한 오륜대와 회동수원지길의 자연경관은 매우 뛰어나다.
- 금정옛길의 모든 코스가 생태관광에 적합하지는 못하지만 '옛길'과 '생태'는 서로 호환이 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가능한 코스부터 시작하고 이미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3) 무대(舞臺)화

### ■ 미정 투어리즘 Mise en tourism

관광대상지가 거창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장관을 연출하는 스펙터클이 부족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를 연극의 무대, 영화의 무대로 만들어 방문객들이 그 지역의 경험담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전하고 자발적으로 스토리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충성고객 확보 전략이다.

### ■ 관광지의 무대화

관광은 이미지 산업이다. 관광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 현재 금정옛길의 이미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옛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코스 등이 제공 되어야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관광기획을 통해 주최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의 스토리텔링과 생태의 조합을 통해 옛길을 통한 지혜와 건강, 학습과 힐링을 함께 얻어 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방문자 스스로 옛길 걷기의 스토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무대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 금정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기본전략

# 금정 웰빙100리길

### ■ 1) 길의 도시 금정, 금정 웰빙 100리길

#### ■ 기본 구상

- 슬로건 : 길의 도시 금정 속으로!
- 주제 : 행운의 금어(金魚)와 유쾌한 동행
- 개요
  - 옛길과 산길, 도심길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금정구를 '길의 도시'로 만드는 그랜드 디자인
  - 금정구의 하천과 산, 호수 등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옛길 자원을 적절히 결합해 구 전체를 한바퀴 도는 원점 회귀형 순환 탐방로(금정구, 2009년 5월 기본구상 발표)
- 코스 : 약 40.3km(100리)
  - 금정산(산성고개, 출발)~범어사~노포동~금정체육공원~회동수원지~윤산~온천천~산성고개

#### ■ 5대코스(안)

구분	길	거리	개요	비고
1	금어천년 옛길	5.5km	• 범어사 옛길과 범어사 문화누리 체험길을 아우르는 사색의 탐방코스	사색 힐링
2	범어사 11암자길	12km	• 영남대로(황산도)의 자취를 더듬고 회동수원지, 오륜대 일대의 문화를 체험	사찰 순례
3	금정산성 순라길	20km	• 금정산성 4대문 순환 탐방로 • 코스 : 산성고개~대륙봉~제2망루~남문~제1망루~파리봉~서문~석문~고당봉~금샘~금정산장~북문~원효봉~제4망루~제3망루~나비암~동문~산성고개(원점 회귀)	역사 탐방
4	기찰테마길	12.5km	• 영남대로(황산도)의 자취를 더듬고 회동수원지, 오륜대 일대의 문화를 체험	옛길 체험
5	황산도 하정마을길	2.4km	• 잊혀지는 황산도 상의 역참인 '소산역(蘇山驛)'의 의미를 재인식, 문화관광자원화함 • 코스 : 남산동~하정마을~상현마을	문화 산책

#### ■ 추진 전략

- 금정구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길을 다시 세분, 확장해 문화관광콘텐츠화 강구
- 걸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걷고, 차량이나 자전거 이용도 무방

####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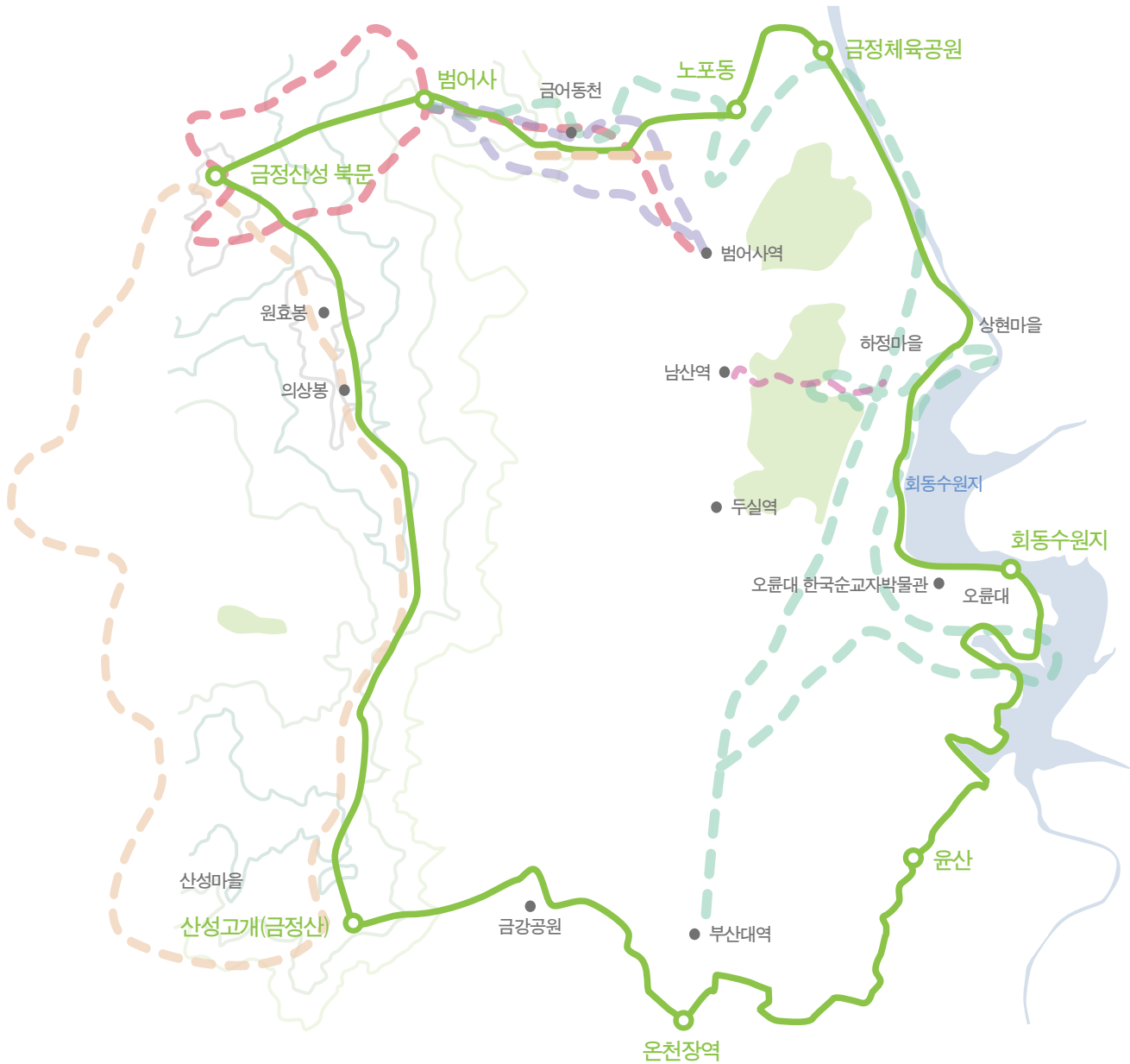
- 자연 생태와 도시가 잘 어우러진 '길의 도시 금정' 이미지 제고
- 옛길과 현대길의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정 구현

#### ■ 과제

- 금정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랜드 디자인에 걸맞게 최소한의 안내체계나 지도 등이 필요함
- 향후 코스 세분화 및 연계코스 등을 설정하고 종합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함

## 금정 웰빙 100리길 개요도

총 거리 약 40km



- 범어사 11암자길
- 금정산성 순라길
- 기차 테마길
- 금어천년옛길
- 황산도 하정마을길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기본전략

### 금정 웰빙 100리길 5대 코스

#### ■ 1) 금어천년 옛길

##### ■ 제안배경

- 사업 대상지는 영남지역 3대 사찰인 범어사 일대로, 현재 금정구와 범어사가 추진 중인 선(禪)문화센터 및 성보박물관 조성사업과 함께 보행코스개발 등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 ‘범어사 옛길’은 범어사가 창건된 서기 678년부터 스님들과 관원, 민초들의 발길이 쌓여 자연스럽게 조성된 옛길로 자취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 이 길은 조선시대 대표적 관로인 영남대로 (황산도)의 지선으로 동래부와 범어사, 양산 황산역과도 연결되어 옛길의 발굴 복원의 의미를 가짐.
- 이 옛길 코스를 ‘누리길’과 연계해 전체 5.5km의 완결성 있는 역사·문화·건강 테마길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코스

범어사역~금어동천 석각~범어정수장~범어사입구~등나무군락지~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 ■ 코스특징

##### • 범어사 옛길 걷기

범어사 가는 옛길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옛길로 꼽힌다. 범어사 옛길은 678년 범어사가 창건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로(황산도)가 지나던 금정구 부곡3동의 옛 십휴정(十休亭) 기찰(현 금정농협 기찰지점 일원)에서 시작되어 구서 마을~두실마을~남산교~신암 마을~남중 마을~팔송진을 거쳐 현 경동아파트를 지나 범어사 입구까지 이른다.

출발 지점인 기찰 마을부터 구서마을, 남중 마을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들어서 옛 자취를 찾을 수 없고, 경동아파트 지나 산길로 접어들면 일부 유적과 정취를 맛볼 수 있다. 도시철도 범어사역에서 출발하면 청룡동 그린 세종빌을 따라 정수 3길로 연결된다. 계속 오르면 1932년 준공된 범어 정수장을 만난다.

경동아파트 경내를 지나 범어로를 가로 질러 숲속 오솔길로 들어서면 대룡 마을과 작장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과 연결되고, 좀더 가면 참새미(약수터)가 나타난다. ‘금어동천’ 석각은 참새미 바로 옆에 자리한다. 오던 길을 계속 가면 선정비 등 비석 5기가 세워진 ‘비석골’을 지나고 이내 범어사 매표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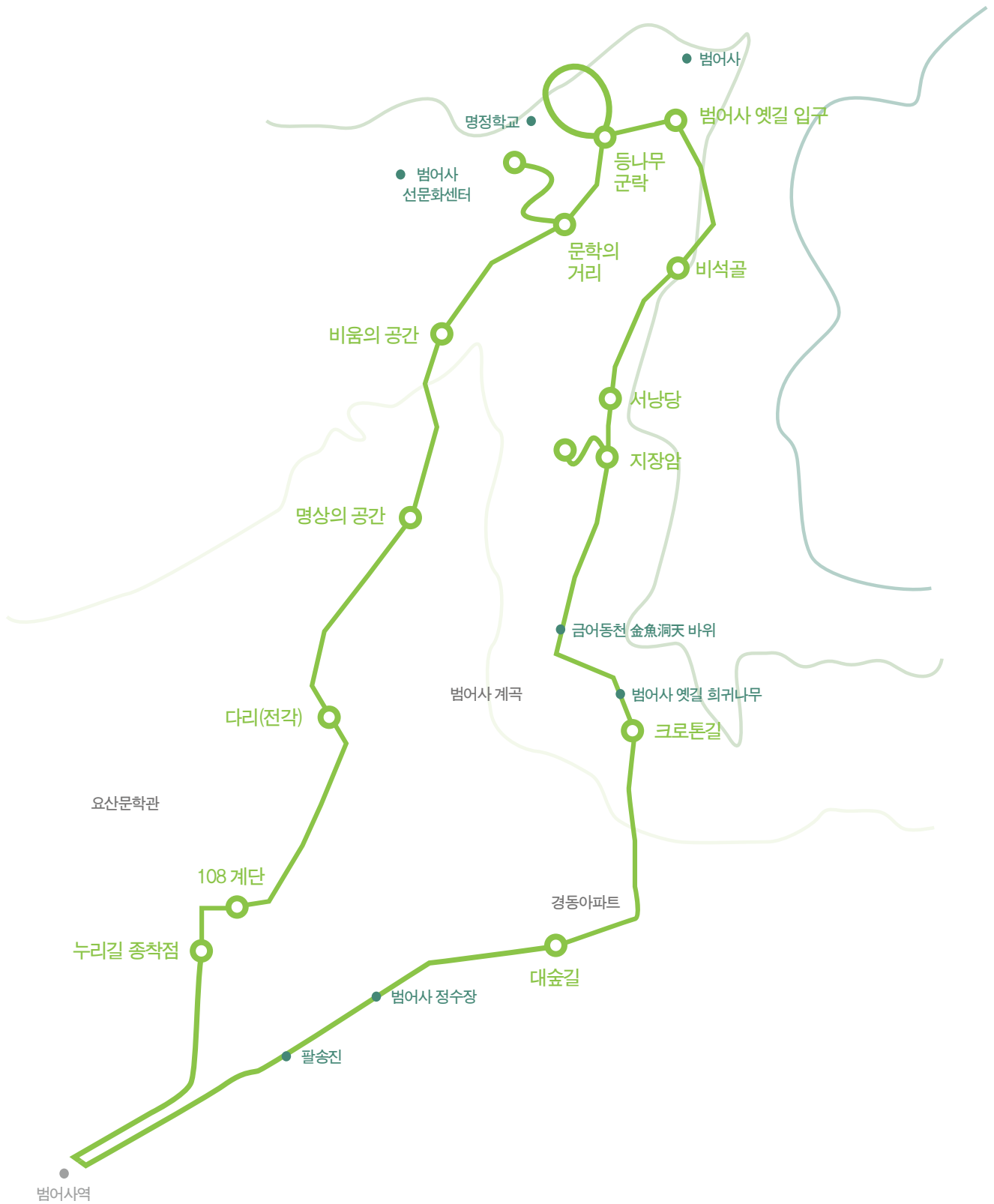
범어사 옛길은 범어사 역사를 고스란히 안은 데다, 동래부와 범어사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해주고 있어 그 자체로 역사 문화 생태 탐방로라 할 수 있다.

##### ■ 기대효과

- 금정산의 상징적 문화·관광콘텐츠 생산
- 범어사와 주변 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기대

## 금어천년 옛길 개요도

총 거리 약 5.5km  
도보 약 1시간 30분



## 주변 스토리

### ① 금어동천(金魚洞天) 바위

금어(金魚)는 금정산에 산다는 신비한 물고기란 뜻으로, 범어사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동천(洞天)은 신선이 내려와 산다고 할만큼 경치좋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금어동천이라 적힌 바위면에는 김철균·정현덕·윤필은·김교헌 등 역대 동래부사들과 지역 유지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깊이 음각된 글씨에 문기(文氣)가 서려 있다. 이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면 아득한 절벽 아래로 범어천이 흐른다. 중간에 자동차 순환도로가 놓여 경치가 훼손되긴 했으나 여전히 절경이다.

### ② 비석골

범어사 옛길의 참새미와 '금어동천' 바위를 지나 계속 오르면 비석골이 나온다. 이곳에는 정현덕(鄭顯德), 홍우길(洪祐吉), 조엄(趙), 정현교(鄭獻敎), 장호진(張浩鎭) 등 범어사에 대한 지원과 보시로 은덕을 베푼 지방관의 공로를 새긴 다섯 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 속의 정현덕은 구한말 대원군의 심복으로 <봉래별곡>등 부산과 관련한 많은 시가를 남겼다. 그는 외세에 저항한 풍운아였으나 대원군 실각과 함께 유배되어 사약을 받아야 했다. 조엄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영도지역에 퍼뜨린 인물이다.

이곳의 비석들은 시대 변천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 비석들은 금어동천 옛길, 즉 범어사 가는 가장 오래된 옛길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 ③ 조엄과 낭백스님 이야기

비석골의 5기 비석 중 가운데에 있는 조엄의 공덕비는 범어사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준다. '낭백 스님이 죽어 순찰사가 된 이야기'이다. 조선 중기 동래 범어사에 낭백(浪伯)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범어사에 입산해 수도했으며 보시행을 발원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타인을 위해 바쳤다. 그리고 커다란 원력을 세워 생을 거듭하면서까지 그 염원을 이뤄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환생 설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비석골에 세워져 있는 '순상국조공엄혁거사폐영세불망단(巡相國趙公, 祛寺弊永世不忘壇)'이다. 비문은 조선 순조 8년(1908), 조엄의 후손인 조중려가 범어사의 요청으로 썼으며, 동래부사 조엄이 절의 폐단을 없애준 것에 대한 은공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는 환생과 윤회, 인과응보, 원력과 보시, 그리고 후세의 평가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 ④ 범어사의 물레방아

범어사 성보박물관 뒤편 주차장 옆의 범어천 계곡의 흩어진 자연석 속에서 돌확과 원주(圓柱) 형태의 다듬돌들이 흩어져 있다. 옛 범어사 방앗간의 물레방아 흔적이다. 쌀을 도정하는 데 쓰는 절구나 방아를 걸었던 돌이다. 이곳엔 한창 때 물레방앗간이 12채나 있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때 범어사는 사유답(寺有畓)이 5천 마지기에 이르는 대지주였다. 동래, 금정, 양산 등에서 걷는 소작료만 1만 석이 넘었다. 1924년 소작인은 1456명. 이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소질메와 지게에 나락(소작료)을 싣고 범어사 옛길을 따라서 운반했다. 이것을 도정하려다 보니 물레방앗간이 필요했고, 수량이 풍부한 범어천이 적지였다. 이 물레방앗간은 해방 전후까지 돌아갔다고 한다.

### ⑤ 범어사 정수장

금정구 청룡동 78-3번지에 위치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장 소속 정수지소이다. 1927년 착공하여 1932년 준공하였다. 애초에는 범어사 수원지의 물을 끌어와 식수를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법기수원지에서 하루 5,000톤을 가져와 수돗물을 생산, 선두구동, 노포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일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범어사 정수장 내에는 수령 70~80년 된 편백과 삼나무 등이 거대한 키를 자랑하며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총 거리 약 12km  
도보 약 3시간





## ■ 2) 범어사 11암자길

### ■ 제안배경

범어사 산내 암자 11곳을 하나의 동선으로 돌아보는 순례 코스

### ■ 주제설정

구도의 길

### ■ 코스

도시철도 범어사역~범어사 옛길~지장암~계명암~청련암~내원암~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금샘~미륵사~원효암~대성암~안양암~금강암~사자암~만성암 (전체 약 12km)

### ■ 코스트징

- 범어사 옛길과 연계가 가능하고 범어사의 풍성한 스토리텔링 공유 가능
- 접근성이 양호하며, 약 12km로 하루 코스로 제격
- 약간의 등반과 사색,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코스
- 금정산의 대표적 순례길이 될 수 있고, 금정산의 상징 브랜드로 개발 가능

### ■ 기대효과

- 범어사의 문화적·종교적 자산 재조명
- 여행 및 산행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금정산의 힐링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화

### ■ 주변스토리

#### ① 범어사와 금샘 설화

‘범어사’라는 절 이름의 유래는 『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나온다. 널리 알려진 ‘금샘-범어’ 설화다.

‘지금의 금정산 정상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금빛 웅덩이가 있어 한 마리의 금빛 나는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梵天)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그곳을 ‘금샘(金井)’이라 칭하고, 그 속의 절을 ‘하늘 나라의 고기(梵魚)’라는 뜻으로 범어사라 했다.’

문헌에 등장하는 금샘이 고당봉 아래에 당당하게 솟아 있다. 금샘에는 하늘 물이 고이는데, 여간해선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흘러나온 샘물은 범어사 계곡의 돌바다(암괴류)를 감돌아 범어천으로 흘러들고, 다시 온천천, 수영강을 거쳐 부산 앞바다로 들어간다.

범어사는 1,30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승 대덕을 길러내고 선승을 배출한 수행사찰이다. 의상 대사, 원효 대사, 표훈 대덕, 낭백 선사, 명학 스님 등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스님들이 범어사를 거쳐 갔다. 뿌리가 깊으니 가지도 무성한 법. 근대에 와서도 경허 선사, 용성 선사, 성월 선사, 만해 선사, 동산 대종사, 성철 스님 등이 범어사에서 수행했거나 주석했다.

범어사는 또한 문화유산의 보고다. 범어사 삼층 석탑(보물 제250호),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삼국유사(보물419-3호), 범어사 일주문과 석등(지방 문화재) 등은 부산이 자랑하는 문화재들이다. 2003년 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범어사가 보유한 문화재와 각종 불교 자료를 보관·전시하고 연구하는 시설이다.

#### ② 범어사와 성월 스님

범어사가 선찰대본산의 면모를 갖춘 것은 성월(性月, 1871~1943) 스님이 원력을 이루고부터다. 오늘날 범어사 산내 암자는 대부분 그가 세웠다고 한다. 성월 스님은 경남 양산 출생으로 15세에 출가, 20세까지 여러 경전을 공부한 후 범어사 계명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참선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주지를 맡아 1910년까지 산내에 여러 선원을 개설했다. 1899년 10월 금강암 선원을 열었고, 1900년 10월 안양암, 1902년 4월 계명암, 1906년 6월 원효암, 1909년 1월 안심료와

승당, 그리고 1910년 10월 대성암에 선원과 선회(禪會)를 창설하여 범어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성월 스님은 또 3·1운동의 후원,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 서명,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전달 등 범어사 항일운동도 이끌었다.

### ③ 불무도의 본산, 청련암

청련암은 1709년 신주 대사(信珠大師)가 중창했으며, 3·1 만세 운동 때는 부산지역 항일 운동의 아지트 구실을 했다. 범어사의 자랑스런 역사다.

청련암은 불문에서 전해지는 금강영관(金剛靈觀)의 산실이자 본산이다. 금강영관은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이루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가의 수행 방법. 양익 스님이 청련암 주지로 주석하면서 수련 및 수행 방법을 정립했고, 적운 스님(경주 골굴사 주지), 안도 스님(장산 원적사 주지) 등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금강영관은 흔히 '선무도' '불무도' '선관무' 등으로 불린다.

범어사에는 양익 스님에 대한 전설같은 일화가 많다. 높이 4m의 범어사 일주문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하고, 앉은 채로 솟아올라 천장에 박힌 못을 빼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청련암 주변에서 회자된다. 양익 스님은 2006년 5월 세수 73세, 법랍 45세를 일기로 청련암에서 '좌탈'(坐脫-앉아서 숨을 거둠) 입적해 마지막까지 화제를 낳았다.

### ④ 범어사의 전설, 동산 스님

동산 스님(1890~1965)은 불교 평화운동을 이끈 한국 근 현대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놓았고, 금정총림 범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24세에 범어사에서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산 스님은 일제 강점기 조선 불교에 깊숙이 침투한 일본 불교의 왜색승 문화를 척결하는 데 앞장 섰고, 1954년 조계종 종정 취임과 동시에 한국 불교 평화운동을 시작했다. 불교 평화 운동은 대처승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불교계의 각성과 폭넓은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범어사 자료를 보면, 동산 스님의 상좌가 100명이 넘고, 쟁쟁한 제자가 300여 명에 이른다. 성철, 지효, 지유, 능가, 고산, 광덕, 정관, 무진장 스님 등 당대 내로라는 선지식들이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 이들 스님은 한 분 한 분이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끈 주역들이다. 범어사에는 지금도 동산 문도회가 유지되고 있다.

#### 동산 스님의 오도송[悟道頌]

927년 7월5일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하안거에 들어 정진하던 동산 스님은 잠시 쉬는 방선(放禪) 시간에 선원 동쪽의 대나무 숲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마침 불어온 바람을 만나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스님은 그 자리에 툇 멈추어 섰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어지럽게 울었다.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었다. 확철대오(廓徹大悟·확연히 깨달아 크게 깨우침)의 경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진리를 찾아 정진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 유명한 동산 스님의 '오도송'이 이때 나왔다.

畫來畫去幾多年(화래화거거다년) 그림을 그리고 그린 것이 몇 해던가  
 筆頭落處活猫兒(필두낙처활묘아) 붓끝이 닿는 곳에 살아 있는 고양이로다.  
 盡日窓前滿面睡(진일창전만면수) 하루 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夜來依舊捉老鼠(야래의구착노서)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네.

### ⑤ 천년의 미소, 가산리 미륵불

가산리 마애여래입상(일명 미륵불)은 금정산 고당봉 아래 양산쪽으로 가파른 돌계단을 100m 가량 내려간 자리에 있다.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고려시대 초에 제작된 높이 12m, 폭 2.5m의 거대한 마애불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이다. 형태가 토속적이고 유머러스하다.

화강암 재질의 거대한 암벽 주변에 축대와 토기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전에 근처에 사찰이 있었던 것 같다. 위낙 깊은 산중이고, 위치 또한 천험지(天險之地)라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임에도 기도나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 ⑥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2019년 10월 금정구 청룡동 상마마을 사자암 일대에 건립한 선(禪)문화 교육센터이다. 선문화교육센터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형 지붕의 선체험교육관, 선문화관 등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면적은 900여평(2900㎡)이다. 건립 예산은 국비 21억, 시비 20억, 구비 1억, 범어사 자비 28억 등 총 70억이 투입되었다.

범어사는 숙박형 템플스테이, 명상 체험, 사찰음식 체험,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고유 문화인 선(禪)을 보급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어사 주변의 금정산성과 요산문화로, 회동수원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개관식** 불기 2563(2019)년 10월 2일 오후 4시 30분,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수심결 특별 강좌



### ■ 3) 금정산성 순라길(성곽 일주)

#### 제안 배경

- 갈맷길 확장 차원에서 금정산 등산 및 도보 여행의 새로운 콘텐츠 강구
- 금정산 국립공원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금정구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 국내 최대의 산성인 금정산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명품 역사탐방로 개발
-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스토리 등 모든 것을 갖춘 금정산성을 향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 주제 설정

금어 찾는 도보 순라군!

**순라[巡邏]** 조선시대 순찰제도로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 둘레를 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코스

- 산성고개(동문 옆. 출발점)~대륙봉~제2망루~남문~(수박샘)~상계봉~(망미봉)~제1망루~파리봉(일명 파류봉)~전망대~ 서문~부부묘~도원사 사거리~도원사~전망대~부산학생수련원(사시골)~철탑~ 주능선(496봉)~석문(石門)~석문 능선~암문(暗門, 야문)~제2금샘 사거리~금곡동 갈림길~미륵사 갈림길~미륵사~미륵바위 전망대~북문 갈림길~고당봉(802m)~고당샘~금샘~금정산장~북문~원효봉~의상봉~제4망루~무명안부~부채바위~제3망루~나비암~동문~산성고개(원점 회귀)
- 전체 코스 약 20km, 보통 걸음으로 7~8시간 소요
- 하루 코스이며, 1차 산성고개~서문, 2차 서문~동문 산성고개로 나눠 걸어도 됨

#### 코스 특징

- 자연 생태와 경관이 빼어난 국내 최대의 산성을 '순라군'처럼 걷는다는 행복
- 산성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고, 산성막걸리, 오리고기 등 먹거리도 양호함
- 부분적으로 난코스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능선 또는 평지가 많아 보행에도 용이
- 힘이 부칠 경우 중간에 언제든지 하산할 수 있는 것도 장점
- 순라군 되기, 성곽밟기 체험, 기타 전쟁놀이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능

#### 추진 전략

##### ① 추진 과제

- 현재 동·서·남·북문과 4개 망루를 연결하는 도보길은 대부분 연결돼 있으나 서문 부근에는 일부 정비가 필요 브랜드화를 전제로 네이밍 및 캐릭터, 기본 안내체계를 갖춰야 함
- 금정산성 순라길 스토리북 및 지도 제작 필요
- 출발지(산성고개)에 안내소 및 안내자 배치 필요
- 금정구가 주축이 되어 인접 지자체(동래구, 북구, 사상구)와의 사업 협의 필요

##### ② 민관 추진팀 구성

구청과 금정산지킴이단, 금정산 보존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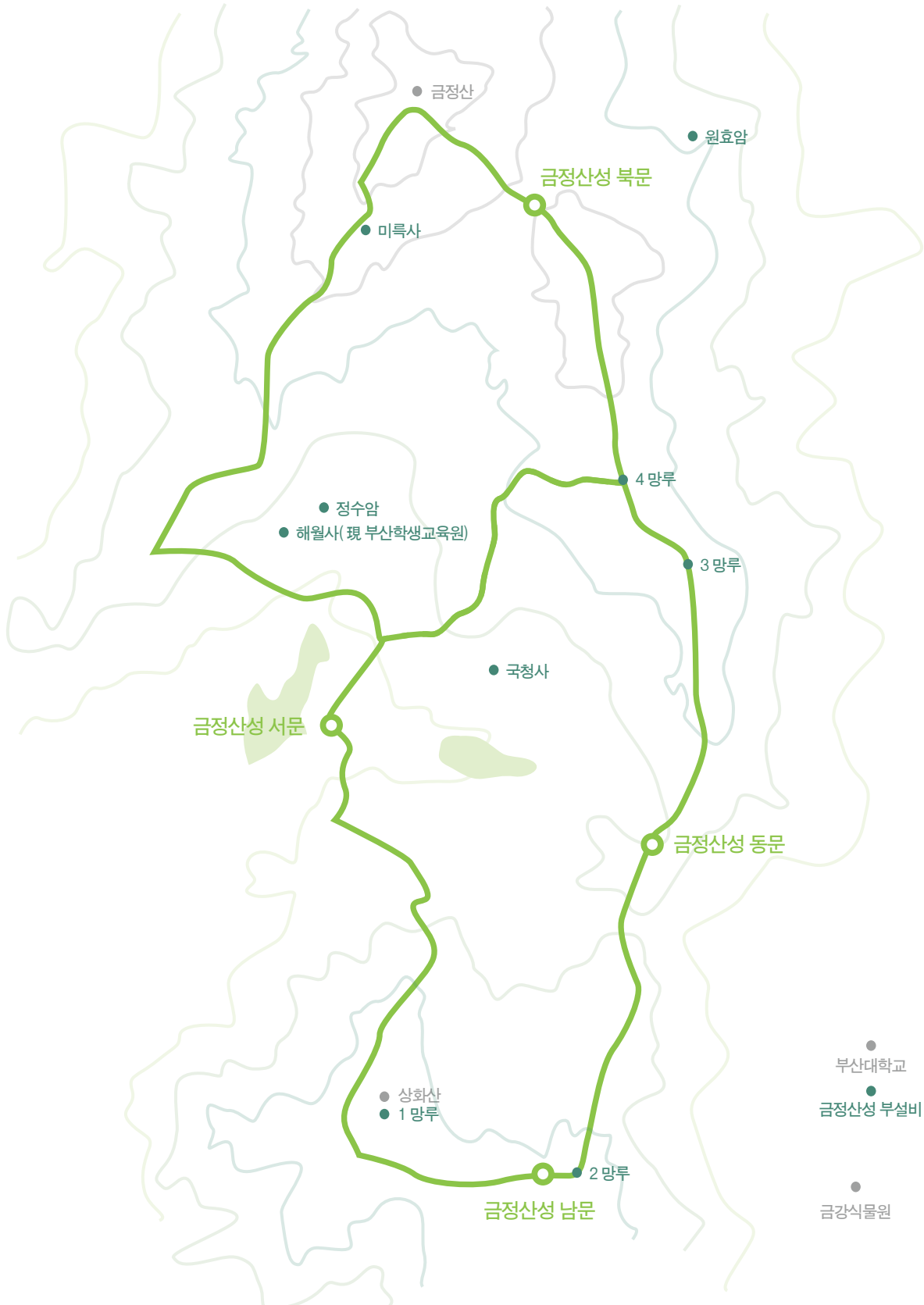
##### ③ 교통편

- 산성고개에서 출발할 경우→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3번 출구로 나와 육교 건너면 203번 산성버스 정류소임. 20분 간격 운행. 산성고개까지 30여분 소요.
- 서문에서 출발할 경우→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40m쯤 걸으면 백양주유소. 횡단보도 건너 외석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번을 타고 서문 입구. 10분 간격 출발

## 금정산성 순라길 개요도

성내 총 면적 250만평(약 8,213㎢)

성곽 둘레 17.7km (도보 7~8시간)





## 기대 효과

- 금정산 역사 문화자산의 재발견, 향토사랑 의식 제고
- 블로그나 유튜브, SNS 등에서 뜰 경우 명품 탐방로가 될 수도 있음
- 향후 금정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일조
-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주변 스토리

### ① 산성 옛길을 찾아서

- 역사, 문화적 의의

사적 제215호(1971년 2월 9일 지정)인 금정산성은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북구, 양산시 등과 함께 광대하게 접해 있는 국내 최대의 산성이다. 동래부 및 양산, 기장의 피난 겸 항전성으로 축성했으며, 전장 17,337m 높이 1.5~3m 성내 총면적은 약 250만평(약 8,213km<sup>2</sup>)에 이른다. 성문 4개와 망루4개가 있으며,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건립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위치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최초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축성 건의가 있었으나, 1701년(숙종 27년) 11월 경상감사 조태동이 재차 산성의 축조를 청하여 1703년(숙종 29년)에 준공을 보았고 4년 뒤 방대한 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시 중성(中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록을 보면, 건물은 좌기청 6간, 좌우행랑 각 5간, 군기고 4간, 화약고 1간, 내동헌 3간, 별전청 4간과 그 외에 장대, 중군소, 교련청, 승장소, 산성창 등이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축성에는 동래부민과 경상감영 각 군에서 차역한 민정으로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백년이 지난 1807년(순조 7년), 동래부사 오한원이 동문을 신축하고, 이듬해 서, 남, 북의 문루를 세웠다. 이때 성곽 길이는 32리, 높이 15척이다. 오한원 부사가 금정산성을 쌓은 기록은 금정초등학교 인근이 금정산성 부설비에 적혀 있다.

산성과 관련된 절은 국청사와 해월사가 있다. 국청사에는 동래부사정현덕공 영세불망비(1872년)가 있고, 산성마을에는 수성장(守城長)인 동래부사가 파견한 김시색공의 영세불망비(1907년)가 있다.

금정산성 안에는 죽전, 중리, 공해리는 3개 자연마을이 금정산성에 둘러싸여 있다. 이 3개 마을은 모두 국방과 관련이 있다. 죽전(竹田)마을은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가 많이 생산됐고, 중리(中里)마을은 중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공해마을의 공해(公)는 관청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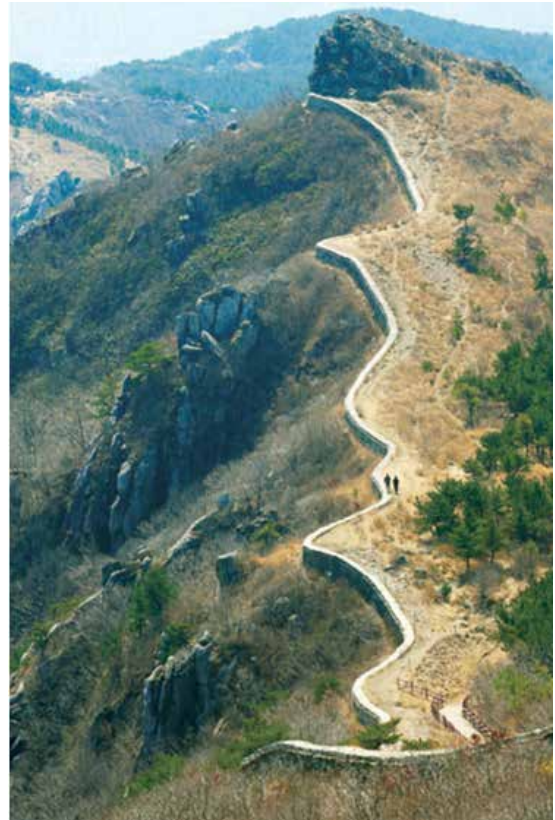
산성마을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시초는 300여 년 전쯤 조선시대 군용물자 저장소로 사용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정산성은 스토리텔링 보고이다. 축성 목적과 과정, 4대 성문에 얹힌 이야기, 복원 과정,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 산성고개 옛길

금정산성 가는 길이 언제 뚫렸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임진왜란 직후 고대로부터 있던 산성에 금정산성을 보강, 축성(1703년)하고 산성마을이 커지면서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금정산성 내 산성마을로 통하는 길은 두 가닥. 하나는 지금의 금강공원으로 올라가 동문 입구에서 산성을 넘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편인 낙동강 인근 북구 화명동에서 올라가는 길이다. 길은 두 가닥이지만 포장도로로 연결돼 있다.

금정산성 마을로 가는 옛길은 '금정산성 부설비'(부산시 기념물제15호)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 부설비는 1808년(순조 8) 동래부사 오한원이 성문과 성곽을 수축하고 세운 것으로 사료 가치가 높고, 무엇보다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해준다. 금정산성 옛길의 원형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옛길을 말해주는 좌표가 되기 때문이다.

금정산성 오르는 옛길은 크게 보면, 동래읍성에서 시작되어 온정을 지나 동문으로 이어진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산성 고갯마루의 동문에서 남문~서문을 따라 낙동강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1800년초 대대적인 부설 공사 이후엔 군사적 용도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로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본다. 그후 1958년 금정구 장전동과 북구 화명동을 잇는 산성도로가 나면서 이곳의 옛길은 등산로의 일부로 변했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산성고개로 가는 옛길은 장전동 금정초등학교에서 금정산성 부설비를 지나 동래 식물원에서 등산로를 따라 동문 입구, 산성고개에 이르는 길이 최단거리이다. 그러나 산지의 경사가 급하여 산허리를 휘감아 구불거리며 오르는 험한 산길이다. 산성고개는 고도 약 400m이다.

이 옛길은 한때 '금정산성 누룩길' '산성고갯길'로 통했다. 오르다 보면, 조선시대 산삼이 많이 난 삼밭골 지나고, 널찍한 공간에 평평한 바윗돌이 몇 개 놓인 고별대를 거쳐 동문 입구에 닿는다. 산성 도로와 대부분 동행하며 오르는 지름길로 보면 된다. 시간은 보통 걸음으로 1시간 30분 남짓 걸린다.

일명 '누룩길'은 동래부 관원들과 병사들이 찾아가고, 산성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오르내렸던 옛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오르는 등산객은 거의 없다.

#### ● 산성 성곽 둘레길

금정산성의 4대문, 4개 망루, 석문 등을 거쳐 성곽 전체를 한바퀴 도는 길이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성곽 둘레는 17.7km이며 보통 걸음으로 7~8시간 소요된다.

산성 둘레길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이다. 산성 보초병(순라군)이 해온 것처럼 '순라(巡邏) 체험'을 비롯해 조상들이 행하던 성곽밧기 풍습, 칼싸움 말놀이 등을 재현할 수도 있다.

### ② 금정산성 스토리

#### ● 금정산성 부설비





1808년(순조 8) 동래부사 오한원이 금정산성 성문과 성곽을 수축하고 세운 비석으로, 현재 장전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2단지 안 썸지공원에 있다. 비석의 석재는 화강석으로 높이 185cm 너비 72cm 두께 35cm다. 비석에는 금정산성의 초축에서 부설 때까지의 경위와 공사 내용, 작업 참여자들, 기부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 비석을 받친 자연석 받침돌이 엄청 크다.

오한원 동래부사는 '동래가 점령되더라도 영남을 지키는 튼튼한 성이 필요하다'면서 '부설(復設)'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토가 유린되고, 나라 전체가 치욕을 감수한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다.

조萊之治 處東南海上 爲島夷路 東國之要衝 壬辰之變 城不守 泉谷宋公死之 遂長驅入城(내지치 처동남해상 위도이로 동국지요충 임진지변 성불수 천곡송공사지 수장구입성). 부설비의 시작 부분이다. 내(萊)는 동래, 도이(島夷)는 섬 오랑캐, 천곡(泉谷)은 동래부사 송상현의 호다. 풀이하면, '동래부 관할지역은 동남쪽 바닷가에 걸쳐 있어 섬 오랑캐가 들어오는 길이 되니 우리나라 요충지다. 임진년 변란 때 성을 지키지 못하고 천곡 송상현 공이 죽으니 왜적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쳤다.'

부설비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금정산성은 계미년(1703년)에 처음 축성된다. 둘레가 9,200보였다. 그 뒤 성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결국 산성을 폐지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폐허가 되었다. 병인년(1806년) 내가 이 고을 태수가 되어 산에 올라 옛 터를 둘러보니 오랜 시간 방황하며 차마 떠날 수 없었다.'(전문과 해석은 『부산금석문』 참조)

오한원 부사는 1806년 2월부터 1809년 2월까지 꼬박 3년을 동래부사로 일했다. 동래가 변경이고 왜인과의 분쟁이 잦아 임기를 짧게 하고 떠나려는 부사가 많았는데, 그는 금정산성을 핑계로 3년을 채웠다. 오 부사의 서원을 오늘날 다시 생각해볼 때다.



#### ● 승병 기지였던 국청사

금정산성 안에는 신라 고찰만 3개(국청사 미륵사 정수암)다. 북문을 벗어나면 약 2km 반경속에 원효암과 범어사도 자리 잡고 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외진 곳에 이처럼 사찰이 많은 것은 이들 사찰이 탁발 시주 등으로만 운영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기록상 산성 축조에 동원된 장정의 60%가 승려로 나타나 있다.

『숙종실록』에는 성안의 해월사와 국청사 승려 100명, 범어사 승려 300명으로 수첩(守堞)케 하고, 동래 양산 기장 3개 읍 승려 수천 명으로 대(隊)를 조직해 산성을 방비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 있는 국청사(國淸

寺)는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국청사지(國淸寺誌)』에는 ‘국청사에는 동래부사 송상헌, 부산진 첨사 정발, 다대포진 첨사 윤흥신 등과 함께 승장 만홍(萬弘), 정안(定安), 성관(性寬), 관찰(寬札) 등 수백 명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703년(숙종 29) 금정산성이 개축되면서 국청사와 해월사(海月寺)를 지었으며, 국청사라 이름한 것은 ‘청정한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 서며, 외적의 더러운 짓밟힘을 막고 깨끗하게 국토를 수호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동래부지』에도 해월사가 북서문을, 국청사가 동남문을 맡아 방비한 기록이 있다.

해월사는 부산학생교육원 일대에 절터만 남아 있으나, 국청사는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청사는 임진왜란 때 이미 의승군의 숙영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국청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정산성승장인’(철제)이 그 증좌이다. 이 유물은 국청사가 승군작대(僧軍作隊)의 중심지로서, 산성을 지키는 승병장이 거주하여 전략 기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며 실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 동문과 서문의 재건 비화

금정산성 동문은 1703년(숙종 29) 축조 되었으나 그후 몇 차례 수리와 보수가 있었다. 동문은 동래 방면에서 산성으로 출입하는 성문으로 관문의 역할을 겸했다. 개구부의 높이가 낮은 편이어서 말을 타고 통과하기가 어렵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낮춘 것이라 한다. 지형지세를 이용해 진입로를 경사지게 하고 휘어지게 한 것도 적의 공격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성문의 형식은 앞면과 뒷면이 홍예식(虹霓式·문의 윗 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방식)이고, 성문의 좌우측은 만곡(彎曲)되게 내어 쏘아 나팔 형태로 적대(敵臺)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서문은 4대 성문 중 유일하게 계곡에 세워져 있다. 이 문을 통해 백성들은 낙동강과 구포, 김해 방면으로 왕래했다. 1824년(순조 24) 동래부사 오한원이 서문의 문루를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육축(陸築·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무사석 등 큰 돌로 축조한 성벽)과 성문만 있었고 문루(門樓)가 없었다. 성문 위에 지은 초루(哨樓)와 ‘ㄷ’자 모양으로 조성된 성곽은 그 모습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심복인 정현덕이 동래부사(재임 1867~1874년)로 있을 때 금정산성 동문과 서문은 또 한번 재건된다. 이때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전해온다.

정현덕은 두 성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석공을 두루 수소문한 결과, 사제지간인 두 석공에게 성문 재건을 각각 의뢰했다. 스승과 제자에게 동문과 서문을 맡겨 서로 경쟁을 시켰던 것. 스승은 야욕이 많아 웅대하게 지으려 했던 반면, 제자는 기술을 앞세워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오늘날 동문과 서문의 모습은 이런 취향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공사 끝에 제자가 먼저 서문을 완공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 뵈었지만 스승은 규모를 중시해 그때까지 성문도 달지 않았다. 동문은 서문에 비해 규모는 웅대하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미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결국 사제 대결에서 제자가 이겼다. 지금도 서문은 당시 바른 틈새의 흙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하기도 했는데, 후에는 서로 화해해 힘을 합쳐 밀양 영남루 공사를 했다고 한다.

금정산성 동·서문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었으나, 현재 복원되어 조선시대 산성의 성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 백록동천 이야기

금정산성 부설비가 세워진 곳은 과거 선경에 비유될 만큼 경승지였다고 한다. 1808년에 세워진 부설비를 받치고 있는 큰 암반 위에 ‘백록동천(白鹿洞天)’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정묘년 10월 함께 한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이곳의 경치를 후세에 남길 요량으로 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록’은 흰사슴이 뛰노는 곳이란 뜻이고, ‘동천’은 그윽하고 운치어린 계곡, 즉 신선이 사는 선경을 일컫는다.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는 소하정(蘇蝦亭)이란 지명도 전해진다. ‘소하’라는 사람이 흰 사슴을 타고 금구선인(金龜仙人)과 놀았다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에 등장하는 이야기다. 소하, 금구선인 등은 동천(洞天), 즉 선계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장전동 일원에는 소하정을 줄인 ‘소정’이란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소정마을, 소정교회, 소정탕 등이 그것이다.

#### • 국청사의 정현덕 영세불망비

1872년 금정산성 내에 위치한 국청사 명신평윤 스님이 동래부사 정현덕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국청사 입구에 세운 비석이다. 정현덕은 1867년(고종 4년)에 부임한 이후 동래읍성과 금정산성 수축, 군비 확장, 군사 훈련 등 유사시에 대비

한 많은 준비를 했다. 대원군의 심복이었던 그는 문장가, 서예가, 외교가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비석 앞면에는 '부사정공헌덕영세불망비(府使鄭公顯德永世不忘碑)'라 음각이 있고, 비면 좌우에는 '동래고을에 아름다운 미풍전통을 이어받아/불교사찰을 중건하고/동래에 은혜를 베풀어/사찰에 많은 땅을 주었다'는 내용의 4언시가 적혀 있다.

- 별장 김시도 영세불망비

금정산성을 둔 금정진의 마지막 별장 김시도가 산성마을 일대의 토지와 관련한 세금을 면해 준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이 1907년 2월 산성마을의 비석골(죽전마을)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가옥이 들어서 있는 대지의 부세를 장부에서 빼내 면해 주었고/전답의 결세에 따른 고통스러운 부담을 덜어 주었네/칭송하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넘치고/은혜와 혜택이 세 부락 죽전, 중리, 공해 마을에 흐르고 있네'라는 내용의 시가 적혀 있다.

## ■ 4) 기찰 테마길

### ■ 제안배경

- 금정구에는 조선시대의 간선도로인 영남대로의 잔존구간 및 관련유물, 유적등이 상당부분 남아있음
- 금정구 청룡동 일대의 범어사 옛길도 영남대로의 갈래길로서 무려 1,300년 역사를 품은 유서깊은 옛길임

### ■ 코스

기찰~만남의 광장~ 하정마을~상현마을~오륜동

### ■ 매력요소

- 경부고속도로 구서 IC에 인접하고 최근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산성터널이 완공되어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함
- 메인코스 걷기구간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음
- 테마거리로 변화시킬 경우, 회동수원지 산책로와 시너지로 새로운 관광수요가 생길것임
- 역사문화코스로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수 있음

### ■ 추진과제

- 금정옛길 테마코스 개발을 통한 도보관광 활성화
- 부산 천리길의 역사 테마로 통합
- 옛길 복원을 통한 테마코스 개발은 단순한 걷는 길확보가 아니라 지역사를 바로세우고 부산학 지역인문학을 발굴 재조명하여 명실상부 부산을 길의도시, 길의 메카로 만들어감

### ■ 기대효과

- 상현마을과 부산 갈매길은 길이 서로 연결되며 함께 연동하여 더욱 큰 부산시의 대표적 걷기 브랜드가 될 수 있음
- 적극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구서동 만남의 광장을 활성화하고, 길 명소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향후 길 에코박물관이 들어서면 길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음

### ■ 주변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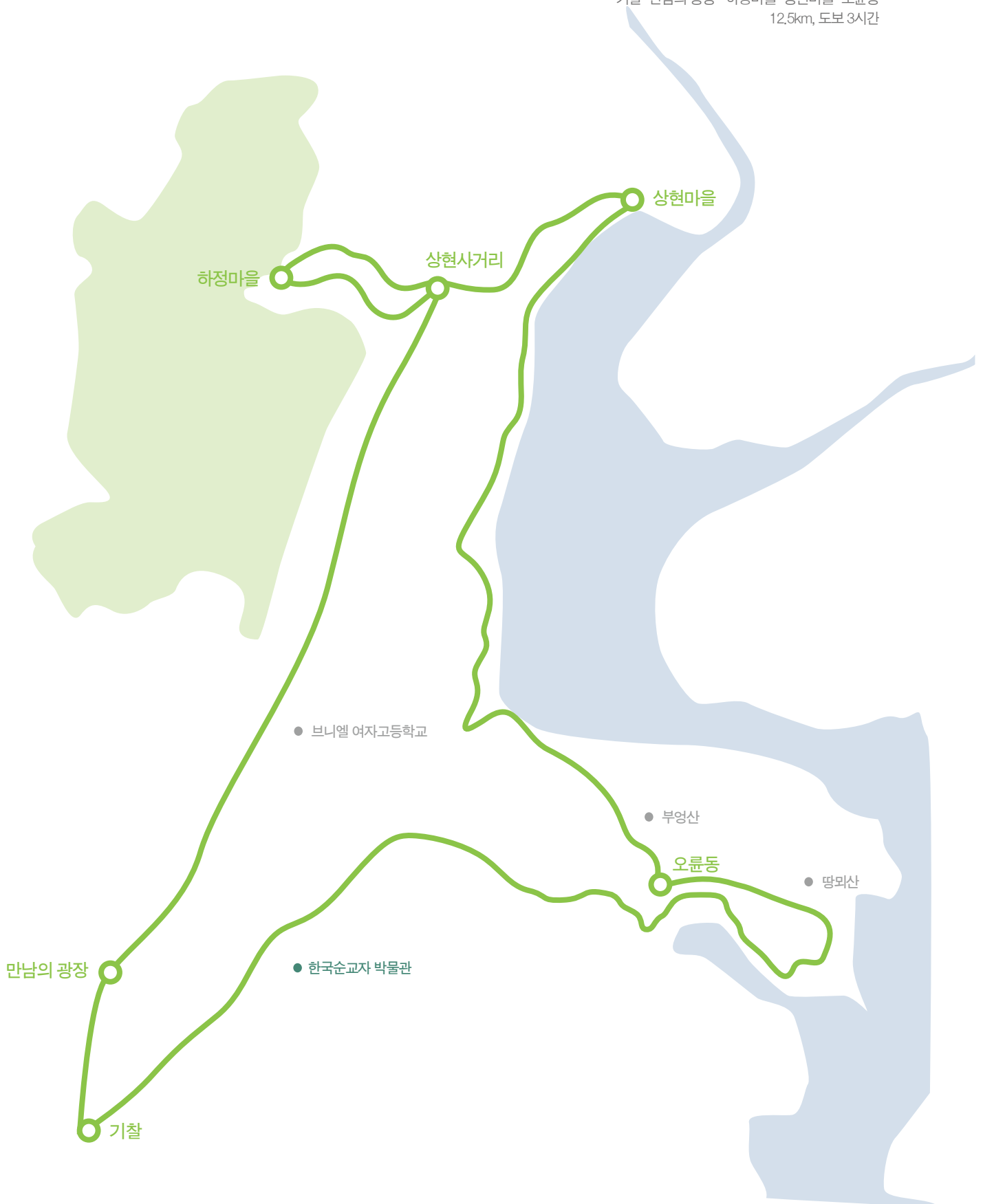
① 회동수원지가 있는 오륜동과 상현마을 등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서깊은 마을이다. 인근에 영남대로가 지나고 있어 상현마을은 소산역 쪽에서 연결이 되었고, 오륜동은 기찰 쪽에서 길이 이어졌다.

오륜동(五倫洞)이란 지명은 이곳의 뛰어난 경승지인 오륜대에서 비롯되었다. 『동래부지(東萊府誌)』(1740)의 고적

## 기찰 테마길 개요도

기찰마을 및 범어사옛길  
10km, 도보 2시간 30분

기찰~만남의 광장~ 하정마을~상현마을~오륜동  
12.5km, 도보 3시간





조에 “오륜대는 동래부의 동쪽 20리 사천에 있었는데 대에서 4~5보가량으로 시내에 임하고 암석이 기이하여 구경할 만하다. 속전을 다 갖춘 까닭에 이같이 이름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1832)에는 “오륜대는 동래부의 북쪽 15리에 있는데 시내와 바위가 기이하다. 옛날 다섯 명의 노인이 지팡이를 꽂고 유상한 까닭에 이로 인하여

## ② 회동수원지 일대 스토리

### • 울고 웃은 회동수원지

회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풍광명미한 경승지였다. 사천(絲川)이라 불린 수영강이 절경의 핵심이다. 수영강은 천성산 범샘에서 발원해 법기·회동수원지를 감돌아 법기천, 임기천, 철마천, 영천 등 지천의 물을 불러 모아 해운대 센텀시티 앞에서 부산 수영만으로 흘러든다. 오륜대 일대는 수영강 상류로 시인 묵객들이 찾아들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1942년 일제가 상수원 확보를 위해 회동댐을 조성하면서 자연 원형과 정취가 크게 훼손됐다. 회동댐 건설로 오륜대가 물에 잠겼고, 그곳의 다섯 마을 중 등곡, 새내, 까막골, 아랫마을(하현) 네 곳이 수몰 되었다. 당시 수몰지구 주민들은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의 회고에 따르면, 새내마을 집터는 70전, 1등 논은 90전, 대밭 1평은 20전, 그리고 구장과 통장은 1주일 동안 매를 맞고 추달받아 허락하였다고 한다.<sup>2)</sup> 생존을 위한 주민 시위는 일제 항거의 역사로 남았다.

1942년 1차 댐 준공식 때 경남 도지사 오오노 대야가 나타나 축사를 했다. 수몰민들은 “오색 테이프를 자르는 저 가위는 우리 창지를 자르는 가위이고, 수원지에 저수된 저 물은 우리들의 피눈물이다”하고 울분을 토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렇게 탄생한 회동수원지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정비, 완공되어 부산 시민의 식수원 구실을 하고 있다. 총 넓이는 2.17㎢, 호수둘레는 20km, 위 아래 직선 거리는 약 6km에 이른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었는데, 2010년 갈매길 열리면서 개방됐다.

### • 철마~동래장 30리 길

회동수원지 주변의 길은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천년 옛길이다. 오륜동 고분 등 삼국시대 유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기장 철마 사람들이 동래장을 오갈 때도 회동수원지 길을 이용했다. 철마 사람들은 30리 먼길을 걸어 주로 농산물을 가져가서 생필품을 구입했다.

동래장이 서는 2, 7일이 되면 남자들은 지게와 등짐을, 여자들은 머리에 농산물이나 산나물을 이고 동래장터를 오갔다. 소를 이용하여 화목(火木)을 싣고 동래장터로 와서 가져온 나무를 팔고 생활용품들을 구입해 가기도 했다. 이들은 철마에서 구곡천을 돌고 돌아 아홉산 아래 산길까지 와서 수영강을 건넜다.

해방 후 회동수원지가 들어서면서 오륜대 여우고개(아시고개)로 가는 육로가 막히자 철마 사람들은 쇠줄배를 타고

2) 주영택, 『금정 26 전통마을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만나다』, 218쪽, 금정문화원, 2017.

다녔다. 쇠줄배는 철마와 동래를 오가던 장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 수원지의 양쪽에 쇠줄을 매달아 놓고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면 줄배가 움직였다.

철마 출신인 안대영 동래고 역사관 관장이 들려주는 철마의 소달구지 풍경은 향수를 자극한다.

#### • 오륜대의 풍류객들

오륜대는 이 지역 풍류의 상징이다. 조선 후기 부산의 대표적인 시가 <장전구곡가(長田九曲歌)>에는 오륜대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장전구곡가>는 구한말 기장 철마 출신의 추파 오기영(吳璣泳, 1837~1917)이 회동수원지 일대의 철마면 장전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은 칠언절구의 한시다. 중앙에서 종2품 벼슬을 지내고 낙향한 그는 오륜대에서 내를 건너 철마 장전마을을 지나 흥연폭포까지 마차를 타고 유람하면서 아홉 구비의 풍치와 소회를 노래했다.

기장 철마면 장전리는 그곳에 '장전(長田)'이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장전은 역장(驛長)의 공비(公費)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 속칭 장밭이라 불렸다. 기장에는 조선시대 때 신명역(新明驛)과 아월역(阿月驛)이 있었는데, 장전리는 가까운 신명역의 장전(장밭)을 운영한 곳으로 추정된다.

죽림(竹林) 박주연(朴周演, 1813~1872)의 오륜대 사랑도 관심거리다. 박주연은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며 벼슬길을 마다하고 26세 때 고향인 오륜대에 정착,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의미있는 문학작품을 남겼다. 그의 <윤대지리부(倫臺地理賦)>에는 오륜대의 존재가 이렇게 소개돼 있다.

박주연은 오륜대라는 지명을 단순히 전설에 따라 이해하려는 태도를 떠나, 유가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엄경흠(신라대), <오륜대와 죽림 박주연의 문학>, 동양한문화회, 2001. 박주연의 삶과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은 엄경흠 교수의 연구결과를 따르고 인용했다. <sup>3)</sup> 죽림(박주연)의 오륜대 시문은 재평가할 가치가 있다.

#### • 사라진 동대(東臺)

금정구 회동동 동대교는 옛날 '동대(東臺)'가 있었다는 곳이다. 부산 8대(臺) 중 한곳인 동대는 신라 때부터 이름난 절경이었다. 동대의 아름다움은 동래부사를 지낸 윤현의 시에 잘 드러난다. 부산 8대는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오륜대, 동대, 영가대, 겸호대, 의상대를 말한다. 회동수원지에 2개의 대가 포함됐다는 건 그만큼 경치가 좋았다는 말이다.

동대는 동대교를 지나 오른쪽 금정구 회동동 동대 마을 어귀의 용머리같이 생긴 바위를 일컬었다. 하지만 옛 터는 주변 개발로 일찌감치 사라졌고, 용머리 바위는 훼손될 뻔 하다가 주민들의 진정으로 가까스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2001년 마을 어귀에 '부산 8대 동대'라는 표지석을 세워 명소의 자취를 더듬고 있다.

## ■ 5) 황산도 하정마을길

### ■ 제안배경

- 잊혀져 가는 황산도 상의 역참인 '소산역(蘇山驛)'의 존재 및 의미를 재인식하여 문화관광자원화의 방안을 모색
- 시민들이 많이 찾는 회동수원지 길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지역 옛길을 활용한 새로운 탐방로를 확보
- 금정구가 안은 역사적인 옛길인 황산도의 잔존 구간을 활용한 새로운 역사탐방로 개발 필요
- 잠자는 지역의 옛길 자원을 깨워 지역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주제 설정

황산도 올래 갈래!

**갈래** 한 군데에서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말의 부분이나 가닥. '가지 앓을래'의 준말.

### ■ 코스

도시철도 1호선 남산역 8번 출구~GS25시~금단로~하정로~동네 베네스트 CC~하정마을~하정마을 입구 삼거리 (비석길)~경부고속도로 굴다리~상현마을 사거리~상현마을 총 2.4km, 도보 40분, 자전거 15분 가량 소요.

### ■ 코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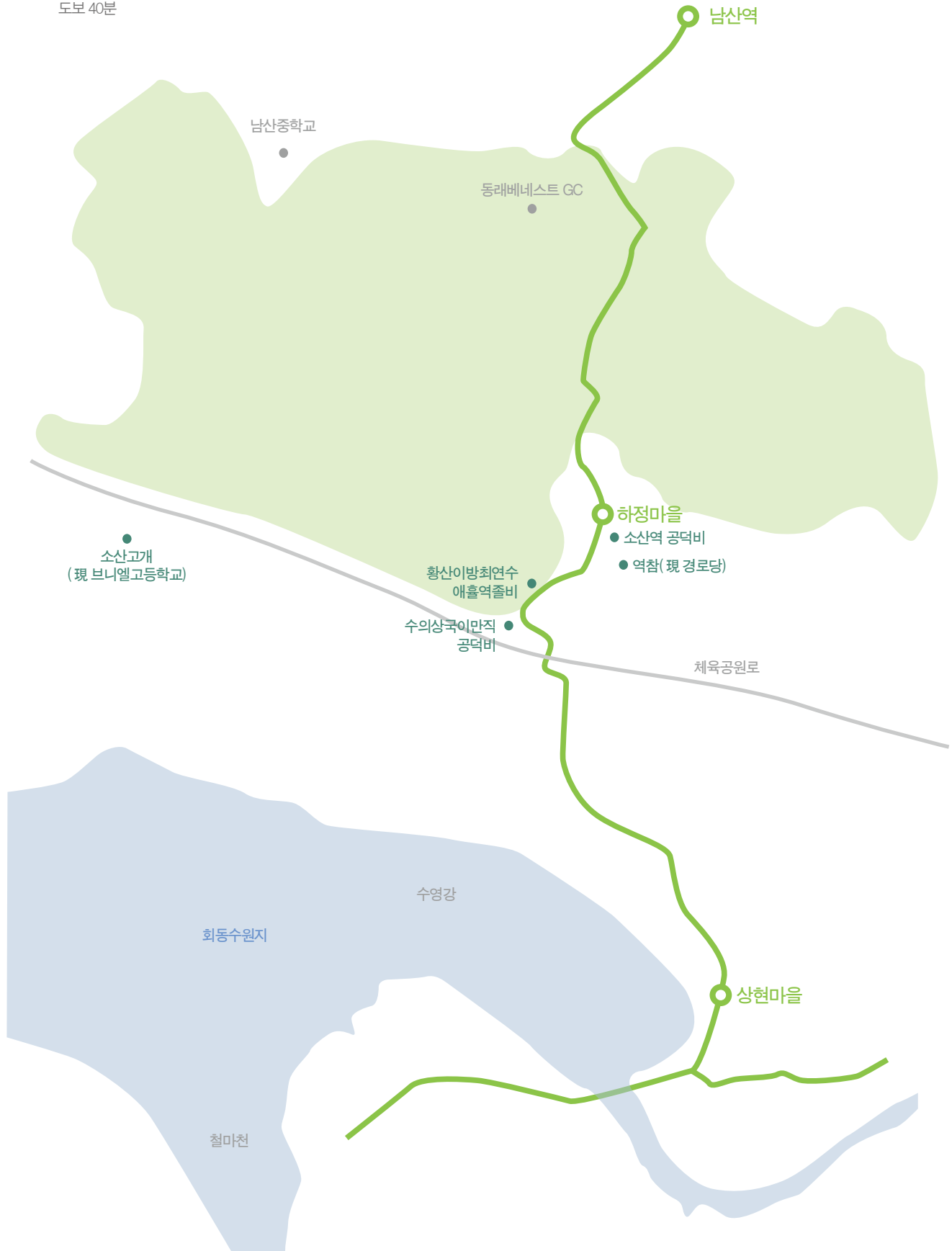
- 도시철도 남산역에서 출발. 골프장 진입로인 하정로는 운치 그득한 산길로, 대부분 보행 데크가 설치되는 등 보행
- 환경이 비교적 양호.

3) 주영택, 『그 역사가 묻힌 금정이야기』, 금정구청, 2009. <동래고을>, 2014. 8. 26자 기사 참고

## 황산도 하정마을길 개요도

총 거리 약 2.4km

도보 40분





- 길가 숲길(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좋아 포토 포인트 및 인생샷 날리기에 좋음
- 역참인 하정마을 앞을 통과하므로 황산도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음
- 상현마을 가는 길도 수백년 이상된 옛길로서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상현마을에선 회동수원지길을 따라 기장 철마, 스포원, 오륜대 등으로 자유 선택

## 추진 전략

### ① 추진 과제

브랜드화를 전제로 네이밍 및 캐릭터, 기본 안내체계를 갖춰야 함  
 금정산성 순라길 스토리북 및 지도 제작 필요  
 ‘하정마을 역참 자료관(라키비움)’ 사업 검토

### ② 교통편

## 기대 효과

- 남산역~하정마을~상현마을 잇는 새로운 탐방로로서 갈맷길 지선 운영 가능
- 옛길의 의미와 역참마을의 재발견.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효과.
-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주변 스토리

### ① 황산도 스토리

- 황산도를 따라서(동래읍성~공수물~기찰~소산역~지경고개)

오늘날 원형이 남아있는 부산권의 황산도(동래로)는 동래성에서 부곡동 공수물마을, 기찰마을, 소산역이 있던 금정구 하정마을을 그리고 지경고개 정도이다. 옛 휴산역 자리인 동래구 낙민초등학교 정문에서 출발하면 동래읍성 동헌과 동래향교를 지난다. 이어 동래향교를 거쳐 명륜초등학교를 끼고 온천 입구 사거리로 들어간다. 이 길은 일명 ‘대낮들이길’로 불렸다. 동래부사가 이취임할 때 기차 창검을 높이 세운 행렬이 자못 장엄하여 큰(대) 나들이라 같았다고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온천 입구 사거리에서 명륜로로 직진하면 공수물 소공원(금정구 부곡2동)에 다다른다. 이곳엔 ‘부사민영훈거사단’이 옮겨져 있다. 1836년 대흥년 때 동래부사 민영훈이 천 포대의 곡식을 풀어 만민구명(萬民救命)을 했다고 한다. 두구·작장·남산마을 주민들은 그 은공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듬해 민 부사가 이임할 때 대낮들이길에 자신들의 적삼을 벗어 밟고 걸어가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거사단은 원래 황산도 길목인 지경고개(금정구 노포동 녹동마을)에 있던 것을 1993년 현재 자리로 옮겼다.

공수물 마을에서 조금 더 가면 부곡3동 기찰(讞察) 마을이다. 고지도에 나오는 십휴정 기찰(十休亭 讞察)은 현 금정농협 기찰 지점 부근이다. 기찰은 요즘으로 치면 검문소다. 기찰 포교(捕校)를 주재시켜 통행자의 신분, 물품 등을 검문 검색했다.

부곡 새마을금고 자리에 있던 기찰 양조장 앞에는 무학송(舞鶴松)이라 불린 노거수가 있었다. 수령 800여 년의 무학송은 기찰 마을의 수호목이었으나 사라졌다.

동래여고 앞 체육공원로를 따라가면 왼쪽편에 태광산업이 있다. 이곳은 옛날 ‘역들’이라 불렸던 곳이다. 과거 소산역의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역전이다.

브니엘중고교를 지나면 소산고개가 나오고 선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경부고속도로 굴다리를 통과하면 소산역이 있던 하정마을이다. 현재 하정마을의 노인정 자리가 과거 역참 자리이다, 마을 들머리에 마방이 있었다고 하나 자취를 찾기 어렵다.

원래 황산도는 하정2길을 따라 곧장 가야 하나, 경부고속도로에 막힌다. 다시 체육공원로로 나와 영락공원으로 가는 굴다리를 지난다. 금정도서관 가는 길이 옛 황산도다. 경부고속도 부산톨게이트 옆 갈록산 기슭 길옆에 훼손된 선정비 2기가 서 있다. 18세기 중엽 동래부사를 지낸 정이검과 조재민을 기리는 비석이다.

황산도는 노포동 고분길(노포 차량기지창)을 비켜 팔송 경찰 초소를 지나고 작장마을, 대룡마을을 거쳐 ‘지경고개’에 이른다. 지경(地境)은 부산과 양산의 경계라는 뜻이다.

## ② 황산도 노변마을의 지취

### • 소산역(하정마을)

소산역(蘇山驛)은 고려시대 때는 금주도, 조선시대 때는 황산찰방역 소속의 역참으로 금정구 선두구동 하정 마을에 있었다. 영남 대로의 종착지인 동래 휴산역과 낙동강 하구의 양산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

『고려사』권82, 병2 참역에 “금주도는 31개소를 관할한다. …양주역·황산·원포·위천(양주), 소산(동래), 아등량·기장역”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 『동국여지승람』권23 동래현 역원에는 “소산역(蘇山驛)은 동래현의 북쪽 15리에 있다(蘇山驛在縣北十五里)”라고 되어 있다.

『동래부 읍지』(1832) 역원에는 “소산역은 부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남쪽 휴산역과의 거리는 20리이고, 동쪽 기장 고촌 역과의 거리는 20리이며, 북쪽 양산 위천역과의 거리는 40리로 대마 1필, 중마 2필, 복마 7필, 역리 51명, 노비 24구가 있다(蘇山驛在府北二十里 南距休山驛二十里 東距機張古村驛二十里 北距梁山渭川驛四十里 大馬一匹 中馬二匹 卜馬七匹 驛吏五十一人 奴二十四口)”고 소개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그린 『부산 고지도(釜山古地圖)』의 제8쪽에서 기찰을 지난 지점에서 소산역이 확인되고, 말을 탄 길손과 함께 소산역의 북쪽 멀리에 양산 경계의 사배현(沙背峴)도 확인된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소산역의 존재는 확실하며, 부산과 양산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하정마을의 노인정이 역참터, 마을 앞 개울가가 마방터라고 하고, 지금의 당산나무 옆에서 거릿대제를 지냈다고 한다. 하정마을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40여 호의 번두리 마을이 더욱 고립된 형국이며, 최근 전원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 • 소산전투

소산역이 있던 소산고개(현 금정구 브니엘고등학교 앞에 있는 고개)는 임진왜란 때 치열한 의병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여기엔 충의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의병 스토리가 전해진다.

1592년 4월 15일(음력) 오전, 반나절만에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대로 중 동래~밀양 길인 황산도(黃山道)를 따라 진격했다. 왜적의 침입 소식을 듣고 동래는 물론 해운대·기장·사상 등지에서 울분에 찬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사농공상, 양반 천민 구분없이 참가했으며 대부분은 문중 사람들이었다. 전체 의병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했다.

의병장은 금정구 상현마을 출신 김정서(1561~1607)였다. 향토의 곳곳한 선비 66인의 추대를 받은 김정서는 긴급 의병부대를 편성, 왜적의 주둔지를 정찰하고 동태를 살핀 뒤, 소산고개 부근에 매복해 투석을 하거나 게릴라전으로 적진을 교란시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이후 본격적인 의병활동에 나선 김정서는 언양 작천정, 기장, 울산 전투 등 경상도 동부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쌓았으며, 망우당 객재우와 함께 창녕 화왕산 산성 방어전에도 참가하여 전공을 올렸다.

임란 후 공을 세운 이들을 기록한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는 부산지역 인물 66명이 실린다. 3년 뒤인 1608년(선조 41년) 동래부사 이안눌은 이들 중 공적이 특히 뛰어난 24명의 별전공신(別典功臣)을 선정한다. 임란 항전기록 등이 실린 『충렬사지(忠烈祠志)』도 동래 의병들의 활약상을 전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소산전투에 참가한 의병이다.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주영택 원장에 따르면, 동래읍성 및 소산 전투에 참전한 문중은 의병장 김정서를 배출한 강릉 김씨를 포함해 모두 14문중이며, 의병장이 10명, 의병 26명 등 총 36명에 이른다.

소산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김정서 의병은 임란 후 발생한 최초의 의병으로 기록된다.<sup>2)</sup> 학계의 추가 연구와 검증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 • 소산역 공덕비 스토리

소산역이 있던 하정마을 입구에는 두 기의 공덕비가 서 있다. 황산도와 소산역에 관여한 인물들의 공적을 적은 비석으로 두 기 모두 금정구 향토문화재다. 두 기의 비석은 하정마을 입구 개울가에 쓰러져 나뒹굴고 있던 것을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주영택 원장이 발견했고, 2007년 12월 금정구가 그 가치를 인정해 하정마을 들머리에 복원한 것이다.



#### • 수의상국이공만직영세불망비

1887년(고종 15년), 중앙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이만직은 황산도의 황산역(양산시 물금)과 소산역(금정구 하정마을)을 거쳐 부산포를 시찰한다. 부산포의 실정을 파악한 그는 “부산포 개항(1876년) 이후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30%의 관세를 물려 국고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조정에 해관 설치를 건의한다. 이에 고종은 ‘마땅한 조치’라며 윤허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관세제도는 이렇게 도입됐다.

이만직은 우리나라 ‘통상 무역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암행어사 이만직의 이 같은 업적을 담은 비석이 하정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수의상국이공만직영세불망비(繡衣相國李公萬植永世不忘碑)이다. 이만직이 소산역의 세금 삭감과 역원 복지를 위해 애쓰고 조정에 해관 설치를 건의한 내용이 실려 있다.

비명 양쪽에는 ‘우리의 폐단을 누가 구원하랴 때를 기다려 개혁하였네/메마른 구덩이에 혜택을 고루 미치고 또렷하게 병의 맥을 진단하였네/오래갈 규범을 조금 보존하여 점차 소생함이 있도록 기약하였네/은혜와 덕을 몸에 새겨 길이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네’라는 내용의 시가 새겨져 있다.

비명 뒷면에는 ‘황산(黃山) 무흘(渭川·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휴산(休山·동래 낙민동 부근)’이라는 역명이 뚜렷하다. ‘광서 4년(光緒四年) 무인정월일(戊寅正月日) 입(立)’이라는 건립 일자와 비를 세운 ‘소산(蘇山)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의 이름도 보인다. 이만직 공이 무흘에서 휴산을 거쳐 소산역에 와서 민생복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소산역의 감독관과 관리책임자가 1878(고종 15)년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 • 황산이방최연수애홀역졸비

이만직 비석 옆에 나란히 세워진 ‘황산이방최연수애홀역졸비(黃山吏房崔延壽愛恤驛卒碑)’는 상관이 부하를 위해 세운 이색 송덕비다. 이방 최연수(崔延壽)가 역졸을 아끼고 보살피는 인격과 덕망이 높아 이방으로 있기에 아깝다는 뜻에서, 소산역과 휴산역의 도장·수리 상관이 1697년(숙종 23)에 세웠다는 것이다.

비석 앞면에는 ‘공무를 받들어 정성을 다해 어루만져 돌보는 뜻이 간절하였다/차가운 연못과 같이 청렴하였으니 이방으로 머문 것이 애석하도다’라는 글이, 뒷면에는 휴산(休山) 소산(蘇山)이라는 두 역명, 수리(首吏·역리의 우두머리)와 도장(都長·감관의 상관)의 이름과 ‘강희 36년 정축 2월 1일’이라는 건립 일자가 새겨져 있다.

보통의 공덕비가 부사나 군수의 치적을 칭송하는 내용 일색인데 반해, 이 비석은 상관이 부하를 위해 세운 비석이란 점이 특이하다. 무엇보다 황산도와 소산역의 존재를 증언하는 비석이라는 점에서 사료 가치가 크다.

#### • 동래부사 민영훈 거사단

조선 후기, 금정구 두구, 작장, 남산동의 마을 주민들은 심한 흉년으로 굶어죽어 가고 있었다. 그때 동래부사로 재임한 민영훈(閔永勳, 1835년 9월~1837년 3월)은 창고를 열어 천 포대의 쌀을 내어 1만여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한다. ‘만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만민구명(萬民救命)이다. 그 은공을 기려 세운 비석이 ‘동래부사 민영훈 거사단’이다. 거사단(去思壇)은 수령의 선정을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세운 단이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민영훈 부사가 떠나갈 때(1836년) 적삼을 벗어 동래부 동헌에서 부곡동 기찰까지 걸어가 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주민들은 1838년 부산-양산의 경계인 황산도 지경고개에 거사단을 세우고 매년 제사까지 지냈다. 그러나 도로 확장 공사로 작장마을로 이전했다가 1993년 부곡 2동 공수물 공원으로 옮겨졌다.

거사단 비문 양 옆에는 민영훈 부사를 칭송하는 4언 4구 송덕시가 적혀 있다.

**민영훈 거사단 비문 송덕시**  
廼賑廼饒(내진내건) 흉년으로 부민이 굶어 죽어 가는데 곡식을 풀어 구휼하고  
設屯祛瘼(설둔거막) 세금을 탕감하여 병폐를 제거하였네  
活萬人命(활만인명) 만인의 생명을 살려내니  
百世歌詠(백세가영) 그 은혜를 오래도록 칭송하네

- 무학송(舞鶴松)

황산도가 지나는 금정구 부곡3동 옛 기장 양조장 자리(MG새마을금고)에 있었던 노거수. 수령이 무려 800년이라 하고 마을 수호신, 황산도의 증인처럼 우뚝 서 있었으나 1956년 고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무학송이 자리했던 MG새마을금고에서 부산예술중고교까지 현재 ‘무학송 4로’라 명명돼 있다. 십후정기찰 자취와 더불어 주목해야할 문화원형이다.

- 동래부사 정이검·조재민 선정비

황산도가 지나는 노포동 금정구민운동장 앞 싹지공원에는 이색 공덕비 2기가 서 있다. 원래는 한 개의 자연석 바위에 나란히 새겨진 마애비였으나, 도로 개설 과정에서 분리돼 다소 훼손된 채 따로 복원됐다. 정이검 비석은 머릿부분에 금이가 있다. 2010년 11월 트럭으로 옮기다가 부주의로 땅바닥에 떨어뜨려 돌 윗부분이 깨져버렸다고 한다.

부사조재민청덕선정만고불망비는 조 부사의 선정에 혜택을 받은 당시 동래부 동면(해운대구)과 북면(금정구)의 백성들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가 떠난 후 황산도 길썬인 갈록산 기슭 자연 바위에 세운 비석이다.

조재민은 1741년(영조 17) 소시(召試)로 등과 후 교리(敎理), 사관, 승지(承旨) 등 관직을 두루 거쳐 동래부사로 재임(1750. 7. 15~1751. 6. 17)하다가 1752년(영조 28)에 대사간을 제수받았다.

부산정공이검청덕선정만고불망비는 정 부사의 선정을 칭송하여 동래부 7개면(읍내면,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동평면, 사천면)의 주민들이 1754년에 세운 공덕비이다.

정이검은 본관이 동래이며, 정시선의 손자로 문과로 등과하였다. 대교(待敎), 정언(正言), 교리, 수찬(修撰) 등 관직을 두루 거쳐 동래부사로 재임(1742. 9. 4~1743. 6. 10)하다가 1746년에 대사간(大司諫)을 제수받고 승지도 지냈다.

- 양유하이혜불망비(梁有夏胎惠不忘碑)

양산과 부산의 경계인 지경고개 마루에는 ‘경거가선대부양공유하이혜불망비’라는 비석이 서 있다. 비석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선대부(증2품) 양유하가 1731~1733년까지의 대흥년 때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죽은 시체를 묻어 준 공덕을 기려 동래·양산 주민이 1735년(영조 11년) 거울에 함께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석만 덩그러니 서 있고 안내판이 없어 아쉽다.

- 금단마을 이야기

황산도를 가다 보면, 기찰과 소산역 사이에 금단 마을(구서동)이 있다. 마을 지형이 거문고같이 생겼다 하여 금단(琴丹)이란 이름이 붙었다. 금단 마을의 분통골에 사정(射亭, 활터)이 있어 영남 지방 선비들이 활쏘기를 하고, 이 마을의 기생 술집에서 놀고 갔다는 구전이 전해진다.

금단 마을은 소산(蘇山) 줄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그 가운데로 황산도가 지났다. 옛날엔 산촌이라 여우가 많이 살았다는 말도 전해지며, 주민들은 마을 남쪽의 너른 역들에서 역전(驛田)을 소작하기도 했다.

1969년 마을 남쪽에 태광산업 동래공장이 들어섰고, 1970년대 들어 마을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왔다. 황산도 노변마을이 도로 때문에 격은 변화였다. 이후 2005년 태광산업 동래 공장은 중국으로 옮겨갔고, 그 자리에 흥국화재 동래지점이 들어왔다.

황산도가 지나는 마을길 끝엔 동래베네스타 골프장이 막고 있으며, 도해사(道楷寺)라는 절이 마치 옛길의 나그네를 위로하는 양 들어서 있다.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1. 하정마을 역촌 복원 사업

## ■ 1) 제안개요

## | 제안 배경

- 부산에는 '황산도(영남대로)'라는 조선시대 옛길이 엄연히 존재하나, 옛길 코스 복원은커녕 이렇다할 콘텐츠 개발이 안되고 있음. 옛길은 역사 문화 교육 관광콘텐츠의 1차 자원으로서 의미가 상당한데도 그 가치가 소홀히 평가되고 있음.
- 금정구 하정마을에는 옛 황산도의 일부 자취를 비롯, 관련 비석 2기와 옛 역참터, 마방터 등의 유적이 남아 있어 역촌 복원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임.
- 하정마을 인근에는 국가 인프라의 근간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회동수원지 수변산책로가 자리해 길이 갖는 의미를 살리면서 연계 관광할 수 있는 입지임.
- 약 50가구가 생활하는 하정마을에는 최근 10여 채의 별장 또는 전원주택이 들어섰고, 예스러운 찻집과 현대식 커피숍까지 입점해 향후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 ■ 2) 기본개념

- 조선시대 황산도 상의 주요 역참인 '소산역(蘇山驛)'이 자리했던 금정구 하정마을을 길과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역사문화마을로 복원.
- 먼저 부산도시철도 남산역에서 하정마을을 거쳐 회동수원지 초입인 상현마을까지 연결되는 '하정마을길'을 개발하고, 하정마을에는 전시관·박물관·도서관·카페를 겸한 '옛길 라키비움'을 조성함. 그리고 하정마을 입구 삼거리의 비석을 적절히 재배치, 비석거리를 꾸밈.
- 하정마을 라키비움은 그 자체로 수십억 원이 소요될 정도로 만만치않은 사업이며, 국 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 구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하정마을길은 보행로가 조성돼 있어 가벼운 보수나 정비를 거쳐 안내체계만 갖추면 탐방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임.

## ■ 3) 3대 주요 사업

## 3-1) 하정마을 '옛길 라키비움' 조성

## | 제안의 배경

- 하정마을의 역촌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핵심 거점 시절이 필요
- 지역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하정마을 입구 '금정구 자활센터'를 '옛길 라키비움'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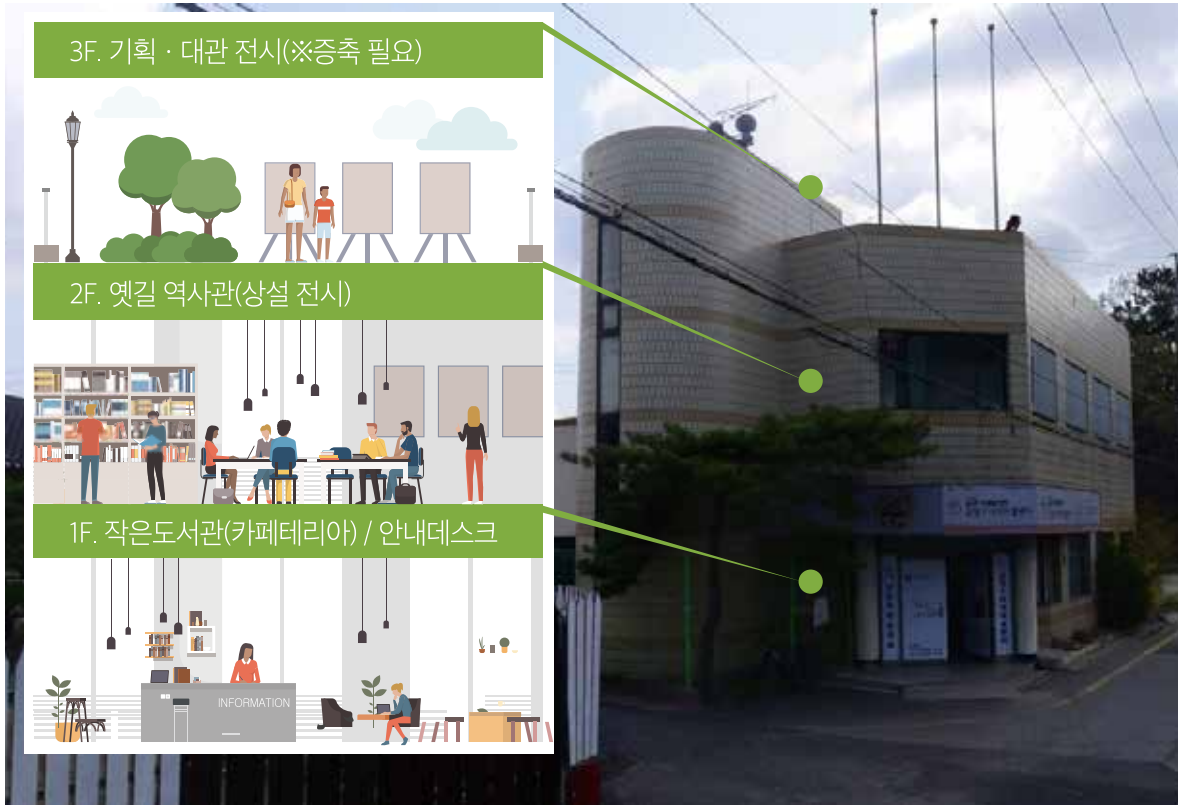
## | 기본개념

- 하정마을 입구 '금정구 자활센터'를 기록관, 박물관, 전시관, 카페 기능을 함께 갖춘 '옛길 라키비움'으로 조성해 '길의 도시 금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함



## 주요내용

- 하정마을 자활센터 제원
  - 규모 : 178.62㎡
  - 연혁 : 1988.5.1
- 옛길 라키비움의 층별 기본 구조 및 기능



구분	구성	비고
1층	작은 도서관(카페), 안내데스크	커뮤니티 센터 고려
2층	옛길 역사관	선비의 과거길 '보부상길' 암행어사길 등 테마전시물
3층	옛길 기획 · 대관전시	3층 증축 필요

## 운영 및 관리

- 운영은 금정구 직영 또는 금정문화재단 위탁 운영 검토
- 필요 최소 근무인력은 총괄센터장 1명, 교육(큐레이터) 간사 1명, 안내자(데스크) 1명
-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 (운영이 가능하게끔 카페 영업 등 허용)

## 기능 및 역할

- 관광객, 도보꾼들의 여행자 센터 기능을 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커뮤니티)



- 옛길에 대한 기록자원 및 전시물을 모아 보여줌(박물관)
- 길과 옛길에 대한 각종 책자를 모아 전시함(작은 도서관)
- 금정 옛길 안내자 및 지킴이를 교육, 양성하고, 나아가 금정옛길 '청년기자단'도 육성(인재 교육 양성)

#### 추진과제

- 금정구 자활센터 건물 전용의 문제
- 자동차로 찾을 경우 최소한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함.
- 하정마을 주민 동의 여부(\*역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 예산 확보

#### 예상 사업비

- 최소 10억원, 최대 20억원
- 라키비움 건립은 규모에 따라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금정구 자활센터의 현장성을 감안하여 카페, 전시, 교육 관련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기대 효과

- 금정구가 자랑할만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보. 부산에서 밀양까지 이어진 황산도 구간의 최초 '옛길 박물관'으로 희귀성, 차별성 확보
- 인근의 금정산과 회동수원지, 스포원, 범어사, 흥법사 등과 연계,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 가능.
- 외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부산에서 밀양까지 이어진 황산도 구간의 최초 '옛길 박물관'으로 희귀성, 차별성 확보
- 남산동~선동 코스가 활성화되면, 회동수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하정마을을 방문
- 길의 도시' 금정구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라키비움이란? (Larchiveum)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말함. 원래 연구 서적을 대출하고 반납하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복합문화기관으로 탈바꿈함. 북카페, 회의장으로도 활용됨.

복합적인 기능을 한데 모아 이용자 수도 늘리고, 편의도 도모하는 데 이 공간의 의의가 있음.

최근 국내에도 라키비움 조성 붐이 일 정도로 유행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에서부터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지역단위의 라키비움까지 종류도 가지 가지임.



#### [주요사례]

- 국가보훈처는 서울 서대문구 옛 서대문구 의회 터에 2020년을 목표로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기로 했음. 국가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는 홀을 비롯해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춘 라키비움 형태.
-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는 2019년 12월 서울의 첫 라키비움인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섬. 170억여원을 들여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과 교육, 커뮤니티 등 행사 공간을 비롯해 아카이브, 연구소, 서고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

- 국회는 2021년 6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1호)에 '국회도서관 부산관'을 개관함. 3만 2000㎡ 규모로, 사업비만 429억여 원에 이르는 초대형 라키비움임. 국회 자료 보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분관하는데, 향후 라키비움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 것.
- 이밖에도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경시대 박물관·고문헌도서관 등이 모두 라키비움 형태임.



### 문경 옛길 박물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말함. 원래 연구 서적을 대출하고 반납하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복합문화기관으로 탈바꿈함. 북카페, 회의장으로도 활용됨.

복합적인 기능을 한데 모아 이용자 수도 늘리고, 편의도 도모하는 데 이 공간의 의의가 있음.

최근 국내에도 라키비움 조성 붐이 일 정도로 유행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에서부터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지역단위의 라키비움까지 종류도 가지 가지임.



### 경기 옛길 청년기자단

경기문화재단에서 2016년부터 매년 20명씩 모집해 양성.

2019년 3월 4기 20명 발대식 거행

경기옛길 및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소개함.

자체 기자단 블로그를 통해 옛길을 특성과 장점, 도보 후의 소감 등을 공유함



### 3-2) 황산도 하정마을길 조성

#### 제안의 배경

- 선사대 역참(소산역)이 자리했던 금정구 하정마을을 관통하는 탐방로가 필요.
- 금정구 옛길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강구.

#### 기본 개념

- 도시철도 남산역에서 하정마을을 거쳐 상현마을까지 이어지는 탐방로 개발.
- 하정마을 리커비움이 조성될 경우, 도시철도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
- 동래 베네스트 골프장 진입로와 겹쳐 자연미가 살아있고, 수십년 수령의 히말라시아다 등 수목이 무성해 숲체험 활동도 용이함.



#### 주요 내용

- 기본 코스는 도시철도 1호선 남산역 8번 출구~GS25시~금단로~하정로~동네 베네스트 CC~하정마을~하정마을 입구 삼거리(비석길)~경부고속도로 굴다리~상현마을 사거리~상현마을임. 거리는 2.4km, 도보로는 약 40분, 자전거는 약 15분 소요.



- 도시철도 남산역에서 출발하므로 접근성이 좋음. 골프장 진입로인 하정로는 운치 그득한 산길로, 대부분 보행 데크가 설치되는 등 보행 환경이 비교적 양호.
- 이곳 탐방로는 특별한 시설 보완 없이, 안내판만 세우면 즉시 이용이 가능함

#### ■ 예상사업비

- 기존 탐방로가 닦여 안내체계 등 설치비 0.5억원 정도면 될 듯

#### ■ 기대효과

- 하정마을을 옛길 테마마을, 특화촌으로 육성 가능
- 갈맷길 지선을 확충해 회동수원지 접근성 개선

### 3-3) 비석거리 재정비

#### ■ 제안의 배경

- 하정마을 입구 삼거리에는 황산도를 증언하는 비석 2기(이만직, 최연수 영세불망비)가 세워져 있음.
- 하정마을 입구엔 마방터(현 마을체육시설 부지)라 불리는 옛 역참 흔적도 남아 있음



#### ■ 기본 개념

- 하정마을 입구의 비석 2기를 마방터 자리에 이전하고, 주변을 비석테마거리로 조성함
- 방문객들에게 옛길의 친근감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옛길 체험 기회를 제공함

#### ■ 주요 내용

- 하정마을 라키비움 조성예정지(자활센터)에서 마을 입구 비석길까지 약 150m를 '비석테마거리'로 개발(차량통행은 그리 많지 않으나 인도가 좁아 확장 및 안전조치 등 필요)
- 마을 입구 마방터엔 말 조형물 또는 승마 체험이 가능하게끔 말을 배치 (\*부산경남경마장과 콘텐츠 공유 협의 필요)
- 비석거리 공터에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주막촌도 조성(금정산성 막걸리촌 검토)

## ■ 예상 사업비

- 약 5,000천만원 추정

### 3-4) 하정마을 스토리텔링

#### ① 김정서 의병장과 소산전투

- 앞 <황산도 하정마을길> 스토리 참고

#### ② 하정(河亭) 마을 스토리

- 유래

하정마을은 조선 시대에 소산리로 불렸다. 소산리는 소산(蘇山) 아래에 있다 하여 소산리라 하였다는 설과, 소산 대사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어느날 범어사의 한 승려가 마을을 지나다가 조그마한 집에 서기(瑞氣)가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집에 들어서니 웅장한 소리를 내며 옥동자가 태어나, 산모에게 불가와 인연이 깊은 동자이니 잘 길러 주면 몇 년 후에 동자를 데려 가겠다고 청하였다. 그 후 불가와 인연을 맺은 동자는 입산수도하여 유명한 스님이 되었는데, 그가 소산 대사이다.

- 마을 형성

- 선동 하정 고분군 주위의 토기를 기준으로 보면 6~7세기경부터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 소산역(蘇山驛)이 처음 나타나며, 『세조실록(世祖實錄)』의 세조 8년조[1462]에도 소산역(蘇山驛)이 등장한다. 『동래부지(東萊府誌)』(1740)에는 소산리(蘇山里)로 나타나고, 역원(驛院) 조에 소산역이 표기되어 있다. 『영남읍지(嶺南邑誌)』(1895)와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1832)에서도 소산역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1904)에 하정동(河亭洞)이란 지명이 처음 나타난다. 『신구 대조 조선 전도 부군면리동 명칭 일람』(1917)에서 하정동(荷亭洞)으로 한자명이 변경된 이후 현재에 이른다. 1963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북면출장소 관할로 바뀌었다. 1966년 리제 폐지에 따라 선리가 선동으로 개칭하였고, 1975년 북면출장소가 폐지되어 동래구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 1월 1일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금정구의 관할이 되었다. 1999년 선동과 두구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인 선두구동이 되었다.

- 자연 환경

- 마을의 북쪽에는 소산(蘇山)이 있고, 남쪽에는 내림골(來臨谷)과 안골이 있으며, 서쪽 아래팔송(남산동)과의 사이에 소산 고개가 있다. 마을의 북쪽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재들, 분덕골, 버티이라고 부른다.
- 경부고속도로와 도시철도 1호선 사이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마을 남쪽에 동래 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내에는 1943년 조성된 하정 소류지가 있다. 주요 기관으로 1997년도까지 선동의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금정구 자활센터가 들어서 있다.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2. 기찰 CIQ 체험관 조성

\* C.I.Q : C는 관세(Customs), I는 출입국 심사(Immigration), Q는 검역(Quarantine)의 약칭.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이다

#### ■ 1) 제안개요

- 기찰은 요즘으로 치면 검문소임. 기찰 포교(捕校)를 주재시켜 동래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행자의 신분과 물품을 검문·검색했다. 영남대로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금정농협 기찰지점이 그 자리임.
- 기찰 맨션, 기찰 목욕탕 등 지금까지도 기찰이라는 지명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과거와 현대가 가까이 느껴지는 것. 다만 현재는 별 다른 특징 없는 평범한 거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 기찰 삼거리의 만남의 광장, 상현마을, 오륜동, 순교자 박물관 등으로 이어지는 유력한 코스의 출발점으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고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다양한 활용이 기대.
- 기찰의 옛 검문소 풍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기찰 CIQ 체험관'을 만들어 기찰포교 체험, 과거길 지나리봇짐과 짚신 체험, 금정옛길 여권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 2) 기본개념

- 기찰검문소의 현대적 의미로 '기찰 CIQ 체험관' 조성하여 영남대로의 첫 출발점이자 동래성 입·출입의 관문이 되었던 기찰삼거리의 역사적 기능을 재조명.
- 금정옛길의 투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만남의 광장을 거쳐 하정마을 상현마을 오륜동을 돌아 다시 기찰삼거리로 돌아오는 역사투어의 거점으로서 기능.
- '기찰포교' 라는 실제적 존재를 활용한 재미있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적용해 봄. 더불어 과거 선조들의 생활양식과 그 시대의 사회제도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됨.
- 기찰 사진관, 기찰 의상실, 기찰 검문소, 기찰 갤러리 등 다양한 구성과 기찰포교 체험, 과거길 체험 등 추진한다.





### ■ 3) 주요내용

#### ■ 프로그램

##### ① 기차 테마역사展

기차 체험관의 주제 전시로서 기차검문소의 의미와 역할, 그 중요성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전시하고 더불어 당시 사회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미니 학습장으로 꾸밈. 기본적으로 영남대로의 의미와 코스, 금정옛길에 대한 소개도 곁들여 실제 금정옛길 투어의 거점이 되도록 구성.



##### ② 기차 사진관, 기차 의상실

기차 체험관의 주요 콘텐츠로서 기차포교 의상과 일반백성 의상, 과거길 의상 등 당시의 다양한 의복과 관련 소품을 구비하여 누구나 와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 일종의 '타임슬립 포토스튜디오'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최근 붐이 일고 있는 흑백사진관의 컨셉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설유료 사진관으로 조성.



### ③ 기찰포교 체험

일종의 역할극으로서 방문객들이 기찰포교와 일반백성, 보부상, 과거길 선비 등 다양한 인물로 역할을 나누어 당시의 모습을 스스로 재현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 때 체험의 리더는 연극배우가 맡아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체험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 인물별로 입체적인 체험이 되도록 함.





#### ④ 기차 갤러리

일종의 옛길 사진 및 그림들의 전시 공간으로서 금정옛길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유발. '금어천년옛길 사진초대전' 등 관련 행사의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관내 예술가와 단체에 적절히 개방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



#### ⑤ 금정옛길 스탬프투어

이 부분은 금정옛길 전체 코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차 체험관의 경우 기차로드 (기차 체험관에서부터 금정문화회관까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기차포교 등 옛 의상을 입고 기차 체험관에서 출발해서 기차로드에 있는 3~4개 지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 스탬프투어를 시도.

#### ⑥ 기차옛길로드 조성

기차삼거리에서 금정문화회관까지의 거리에는 전통적인 맛집과 새로운 스타일의 카페, 세정테마샵 등 다양한 점포들이 거리 양옆으로 가득함. 이 거리에 갤러리와 작가공방, 커뮤니티공간 등 컨셉이 있는 점포들을 조금만 유치하면 거리 자체가 일정 이상의 '그림'을 보여 주는 테마거리가 될 수 있음. 주말에 제한적인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여 기차로드 거리 체험행사와 기차프리마켓 등 개최 고려.



#### 예상사업비

- 5억원 추정
- 체험관이 들어설 하드웨어(건물)을 비롯 각종 콘텐츠 등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
- 부곡3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기차삼거리 주변의 건물을 일부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금정구 옛길 자원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 젊은 층이 좋아하는 체험·놀이 문화 개발로 외부 관광객 유입 기대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3. 금정옛길 '스무고개' 스토리북****■ 1) 제안개요**

- 과거의 관광마케팅이 관광지 특성 위주였다면 현재의 관광마케팅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감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스토리마케팅'이라고도 부름.
- 스토리마케팅을 위해서는 일단 스토리의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인 관광스토리 유형의 세분화와 스토리텔링 전달 매개체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스토리북 제작.
- 스토리북 제작은 스토리 목록 작성, 대표 스토리 발굴, 스토리 테마 추출, 추출된 테마를 구체적 실체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를 통해 관광지가 만들어낸 스토리와 방문객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2) 기본개념**

- 금정옛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대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테마별 구체화 작업 추진.
- 모든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작가들에게 2,3차 창작의 재료를 제공함은 물론, 일반인들의 방문동기를 부여하고 금정옛길에 대한 학습의 도구로 활용.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물론, 조사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이야기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흥미롭게 각색하고 활자 위주 보다는 일러스트와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를 다수 활용하여 시각적 재미가 살아 있는 책자로 구성.

**■ 3) 주요내용**

- 금어천년옛길, 범어사11암자길, 금정산성 순리길, 기찰테마길, 황산도 하정마을길 등 5개 코스 코스 안내 및 지도
- 각 코스에 얹힌 설화와 민담, 인물과 사건 등 주요 이야기 소개
  - 범어사를 지키는 느티나무, 금빛 물고기 금샘, 금정산 대천 애기소와 선녀 이야기 등
  - 조엄과 낭백 스님, 금정산 삼발굴, 금어동천 석각, 비설골 이야기 등
  - 하정마을의 유래와 역사, 기찰과 무학송, 금정산성 달빛걷기 등
- 주민 인터뷰 및 문화콘텐츠 예시 제시
  - 옛길을 걷는 주민, 방문객의 체험 인터뷰
  - 스토리북에 소개된 이야기를 활용한 2차 창작물 예시로 소개(단편소설 등)

## 목차 예시

### 금정옛길 '스무고개' 스토리북 목차 예시

#### 프롤로그 - '금정 옛길' 스무고개를 넘다

#### 1장. 부산의 길과 금정 옛길

#### 2장. 황산도 나그네

#### 3장. 금정 역사인물 이야기

#### 4장. 걷고 싶은 금정 옛길

(금어천년옛길 / 범어사 11암자길 / 황산도 하정마을길 / 금정산성 순라길 등)

#### 5장. 금정의 터 / 맛 / 멋 / 버킷리스트

#### 6장. 한국의 옛길/세계의 옛길

#### 에필로그

## 참고 사례

### 낙동강 하구 솔깃한 이야기 가이드북과 양산 황산배랑길 여행 스토리북 예상 사업비



## 예상 사업비

- 3천만원
- 150mm\*200mm, 100p 내외, 1천부 제작 기준

## 기대효과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옛길 자원을 소개하고 이야기가 흐르는 금정구의 이미지 고양
-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4. 금정웰빙100리길 이야기 지도

#### ■ 1) 제안의 배경

- 관광의 출발은 지도로부터 시작된다. 관광지에 스토리를 입힌 이야기지도 제작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정옛길이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길 지도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각 코스에 대한 방문동기들 부여함.
- 관내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도시철도, 카페, 유명음식점 등에 지도를 비치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을 제작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
-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부산관광공사 등 주요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해 지도를 노출하여 금정옛길에 대한 관심 환기

#### ■ 2) 기본 개념

- 스토리지도는 금정옛길의 역사·문화자산을 누구나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금정옛길 대표 이미지콘텐츠.
- 한 장의 지도에 금정옛길의 주요 코스에 대한 구간, 시간, 특징을 적절한 이미지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각 코스에 얹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요약하여 표현.
- 방문객들이 실제 걷기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로서 제작하고 양면의 내용을 차별화 하여 주요음식점, 카페, 주요 지명(장소) 등을 구체화. 금정옛길 스토리북과 연계 제작하여 제작비를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 3) 주요 내용

- 금어천년옛길, 범어사11암자길, 금정산성 순라길, 기찰테마길, 황산도 하정마을길 등 주요 5개코스 기본개요 및 구간거리, 소요시간 등
- 스토리지도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방문객들 안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코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 예상사업비

- 2천만원

##### ■ 기대효과

- '길의 도시' 금정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옛길과 현대길의 조화를 꾀하고 길을 통한 안팎(금정구/여타 지역)의 소통을 통해 '웰빙 금정' 이미지 강화
- 금정옛길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은 물론,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학습의 자료로서 활용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안내지도로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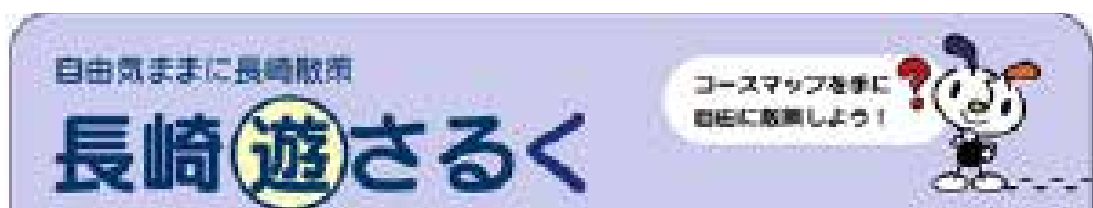
참고 사례

① 나가사키 사루쿠: 지도 테마 및 캐릭터 참조



• 나가사키 사루쿠 개요

-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2006년 1회 사루쿠 박람회를 통해 조성, '사루쿠'란 어슬렁 어슬렁 걷는다는 뜻의 나가사키 사투리.
- 1990년대 650만에 달하던 관광객이 2004년 450만으로 줄자, 친환경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 시도



- 2코스 : 나가사키 통(通) 사루쿠 -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 특징 : 나가사키에서 나고 자라 나가사키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나가사키를 사랑하는 시민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나가사키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가이드와 함께 걸으며 노면전차나 버스도 직접 탑.  
통 사루쿠는 29개 코스가 있는데, 기간한정으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함. 참가비는 500엔.



- 3코스 : 나가사키 학(學) 사루쿠 - 전문가의 강좌를 듣거나 체험하다
- 특징 : 하나의 테마를 정해 본격적으로 나가사키의 숨겨진 길을 걷거나, 야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프로그램. 예약 필수. 사루쿠에 기념품이나, 티타임, 식사요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 가격은 홈페이지 참조.



- 4코스 : 나가사키 식(食) 사루쿠 - 나가사키의 '와카란'을 본격적으로 맛보다
- 특징 : '와카란'이란 일본을 뜻하는 와(和), 중국을 뜻하는 카(華), 네델란드를 뜻하는 란(蘭) 을 합친 단어로서, 일본, 중국, 서양의 음식을 조화시킨 나가사키식의 식문화를 다양하게 맛보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음식으로 나가사키 짬뽕, 사라우동, 토루코(터키)라이스, 요리요리(중국식 과자) 등이 있음.



#### ● 사루쿠의 인기코스

- 인기코스 1 : '이국적인 나가사키를 느낄 수 있다' (사루쿠 유, 통코스)  
국보로 지정된 오우라 천주당을 중심으로 한 코스, 이국적인 옛 모습, 항구의 바람, 뱃고동,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미나미야마테를 산책하는 코스임.
- 인기코스 2 : '오래된 역사, 진귀한 가게들' (사루쿠 유, 통코스)  
오래된 민가와 다이쇼시대의 복고풍 서양관들이 남아있는 나카토오리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코스. 진귀한 물품구경, 나가사키 사람들과 교류도 할수있으며 나가사키 대표 관광지인 '메가네바시'도 들림.
- 인기코스 3 : '온화한 데라미치 산책' (사루쿠 유, 통코스)  
테라미치 근처의 '사탕가게의 유명'으로 유명한 코우겐치와 감기 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콘콘할머니가 있는 산포지, 옛 정취가 남아있는 거리, 많은 중요문화재가 있는 코후쿠지를 걷는 코스.

• 사루쿠 이용시 팁

- 걷다보면 골목골목에서 만나게 되는 사루쿠 표지를 부착한 가게를 적극 활용할 것.
- 나가사키 사루쿠 맵과 각종 정보지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뜻. 화장실 무료 이용 가능.

② 김해시청 허황후 신항길 스토리 지도





### ③ 영도깡깡이길 스토리 지도

[illegible]

④ 영도 광강이길 스토리 지도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5. 금정의 역사인물 웹툰 북

## ■ 1) 제안의 배경

- 금정구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차별성과 상징성을 갖춘 역사 인물이 꽤 있음. 하지만 대부분 조명이 안됐거나 그저 자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임

## ■ 2) 기본 개념

- 금정구의 인물을 새로이 조명해 이를 시민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요즘 인기 장르인 웹툰(웹 형식의 만화)으로 표현해 책으로 엮음
- 금정구의 주요 역사인물 7명을 선정해 각 인물당 A4용지 기준 20쪽씩, 총 140쪽 가량의 '금정 인물 웹툰 북'을 제작함

## ■ 3) 주요내용

## | 동래부사 조엄, 낭백스님

## • 기본 스토리

- 조엄은 동래부사, 경상도 관찰사, 그리고 통신사 정사, 암행어사까지 지낸 인물로 부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임.
- 1764년 조선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간 조엄은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처음 들여와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했다고 전해짐. (강원도 원주, 부산 영도에 자취가 있음)
- 조엄은 범어사에 전해지는 낭백스님 설화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짐.

## • 주안점

- 범어사 옛길에 있는 조엄의 공덕비와 범어사에 전해지는 낭백스님 설화를 바탕으로 조엄의 공덕과 인간애, 그리고 부산과의 관계 등을 스토리로 가져감.
- 조엄의 경우 '동래부사의 환생'이란 주제로 마당극, 뮤지컬도 가능함



## 조엄 공덕비

조엄의 후손인 조중려가 1808년(순조8) 범어사 옛길에 세운 공덕비. 비석에는 '승려들이 금정산성 방어에 동원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주변 사찰은 의승번채(義僧番債) 산성을 지키는 승려의 급여를 위해 지방 관청에서 주변 사찰에 징수하던 돈) 때문에 피폐해 있었는데 조엄이 이를 혁파하고 잡역까지 감면해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

## | 아깝도다 이방! 최연수

## • 기본 스토리

- 금정구 하정마을 입구에는 '황산 이방 최연수 애호역졸비(黃山吏房崔延壽愛恤驛卒碑)'라는 공덕비가 세워져 있음. 이 공덕비는 1697년(숙종 23) 이방 최연수가 역졸(역에 속하여 심부름하던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청렴하기 이를 데 없는 성품으로 덕망이 높아 이방 관리에 그친 것이 아깝다는 뜻에서 상급 관리들이 세운 것임.



- 하급관리인 이방을 위해 상급자들이 세워준 매우 특이한 공덕비로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거리가 됨

- **주안점**

- 상관이 부하 직원을 위해 공덕비를 세워 줄 만큼 청렴과 덕망이 높았던 최연수의 이야기를 오늘날 공직사회의 귀감으로 재창조할 수 있음.
- 공직의 '청렴'이 중시되는 요즘, 업무 처리는 물론 청렴의 표상으로 상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정마을 라키비움이 세워지면 전시물도 가능하고, 인근의 공덕비와 연결하여 황산도 갈래길의 상징 콘텐츠로 부각시킬 수 있음.

## 통상무역의 선구자, 이만직

- **기본 스토리**

- 하정마을 어귀에 세워진 '이만직 영세불망비'의 주인공.
- 1878년(고종 15) 암행어사 이만직이 소산역(하정마을)에 와서 민생 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베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소산역의 감관과 색리가 세웠다고 함.
- 이만직은 암행어사 신분으로 부산포의 실정을 파악하고 고종이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3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관'을 설치토록 함.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관세제도 시작이라고 함.

- **주안점**

- 왕명을 수행하는 '암행어사'라는 직책도 흥미롭지만, 그가 '통상무역의 선구자'라는 사실은 오늘날 무역전쟁 시대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임.
- 부산본부세관에서도 이만직을 '통상무역의 선구자'로 인식하는 등 그의 족적을 의미있게 조명하고 있음.
- 금정구가 부산본부세관 또는 부산세관박물관과 연계해 '이만직 인물기행'이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음.

## 사람답게 살라, 김정한

- **기본 스토리**

- 요산 김정한(1908~1996)은 작가이자 교수, 사회운동가 등으로 활동한 부산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인물.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고문과 1987년 그 후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초대 의장을 맡음. 《사하촌》《낙일홍》《인간단지》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한국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함

- **주안점**

- 남산동 '요산문학관'을 거점으로 문학기행을 하거나 인간탐방 프로그램 개발
- '사람답게 사는 법'을 주제로 한 문학 특강과 답사, 후속 글쓰기 프로그램도 강구. 요산 연구자인 조갑상 경성대 명예교수 등과의 '문학의 현장 탐방'도 검토함.
- 범어사를 소재로 한 대표작 《사하촌》을 교재로 과거와 현재, 문학과 현실 등을 공부하는 답사 프로그램도 가능.

## 시련과 선정, 동래부사 정이검

- **기본 스토리**

- 정이검(鄭履儉, 1695~1754)은 조선 후기 동래 부사를 지낸 문신.
-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원례(元禮). 1730년(영조 6) 문과 병과에 급제하고, 1734년 예문관 대교, 1736년 암행어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을 거침.
- 1737년(영조 13) 홍문관에서 부수찬·교리·수찬을 지냈으며, 1741년 이조 좌랑과 고산 칠방을 역임. 정이검은 1742년(영조 18) 9월 이조 정랑(吏曹正郎)에서 승진되어 동래부사로 부임.

- 주안점

- 정이검은 성실한 목민관이었으나, 1744년 8월 동래부사 때 진행된 일이 발각되어 유배에 처해짐. 동래 부사 시절 비장(裨將)이 정이검 몰래 이익을 꾀한 일이 발각되면서 변방의 수장으로서는 부하들을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죄를 덮어쓴 것. 이 일을 알아챈 정이검의 후임인 동래 부사 김한철(金漢喆)이 조정에 장계를 올리면서 사건이 드러남.
- 이 사건으로 동래 부사를 지낸 사람 중 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10년을 한정하여 법에 따라 처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짐. 그 후 정이검은 복권되어 1746년(영조 22) 대사간, 1748년 좌승지·승지·호조 참의, 1751년 대사간을 역임.
- 정이검이 동래 부사로 재직할 때 동래부민의 부역을 크게 경감시켜 준 공덕을 기려 그가 떠난 10년 후인 1754년 지역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움. 금정구 두구동 금정구민운동장 입구에 있는 ‘동래 부사 정이검 청덕 선정 만고 불망비(東萊府使鄭履儉清德善政萬古不忘碑)’가 그것임. 동래에서 서울로 가는 주도로인 황산도(黃山道) 옆에 세워졌다가 2010년 도로 확장 공사로 현 위치로 옮겨짐.



## 구휼의 표상, 동래부사 조재민

- 기본 스토리

- 조재민(趙載敏)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706년 태생이나 사망연도는 알 수 없음.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언신(言愼). 1737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대사간에 올랐음.
- 1755년 나주(羅州) 과서사건(掛書事件)에 연루된 역적 신치운, 유봉휘의 당여(黨與)로 지목되어 거제도에 정배 되었다가 1763년에 풀려남.

- 주안점

- 『동래부지(東萊府誌)』에는 1750년 7월 15일부터 1751년 6월 17일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음.
- 그런데도 조재민이 퇴임한 후 주민들이 1753년(영조 29)에 그의 선정을 기려 갈록산 기슭에 ‘조재민 선정만고불망마애비(趙載敏善政萬古不磨崖碑)’를 세움. 이 공덕비도 금정구민운동장 입구에 정이검 공덕비와 함께 있음.
- 비의 뒷면에는 “임신년 봄 서면 도감 박민규가 공궁한 자 구휼하고 부역을 덜어 주며/ 농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만드셨다. 옛날의 예법을 일으키셔서/ 먼 변방 고을 사람이 기뻐 감복하였다. 부계의 돌을 쪼아서/ 언덕 위에 타루비(墮淚碑)를 세우니/ 아! 천만년 기울지 말고 깨지지 말지어다.”라고 적혀 있음.
- 하지만 이 공덕비 역시 도로개설 과정에서 깨진 채 엉겨주춤 서 있음.



## 예상사업비

- 3천만원 추정
- 1천부 제작 기준 (B5, 100p 내외)

## 기대효과

- 금정구의 역사인물을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지역 콘텐츠화 함
- 역사문화도시 금정구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금정인물 브랜드를 널리 홍보함
- 옛길에서 지혜를 얻는 금정 옛길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인물 이야기로서 교육적 문화적 가치도 높음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6. 금어동천이야기 페스티벌

## ■ 1) 제안배경

- 축제의 흥수 속에서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독특한 컨셉과 분명한 주제(메시지)를 가진 금정구의 새로운 축제 필요함.
- 과도한 업무와 무한의 경쟁, 끝이 없는 학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과 힐링, 여유와 낭만이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축제 요구되고 있다.
- 금정구의 '옛길자산' 중 천년동안 이어지는 오랜 옛길의 흔적이 상당부분 잘 보존되어 있고 높은 생태적 가치도 보유하고 있는 '금어천년옛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기획한다. - 천년 옛길의 역사적 상징물인 '금어동천'

## ■ 2) 기본개념

- 바위를 활용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 콘텐츠 개발은 물론, '금어천년옛길' 전반에 얹힌 전설, 설화, 인물, 사건, 공간, 나무, 바위, 비석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원천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옛길이야기축제' 컨셉으로 추진한다.
- 특정시간에 특정장소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일시에 모이는 다중집합 형식의 기존 축제형식을 벗어나 일정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길을 걸으며 보고 듣고 즐기며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힐링형 트래킹축제로 구성한다.
- 금어동천바위는 물론 조엄과 낭백스님 등 비석골에 얹힌 역사와 설화들이 한데 어우러진 흥미로운 옛길로서 역사와 생태, 자연과 학습이 한데 어우러지는 학습과 체험의 축제로서 추진 한다.
- 기존의 축제형식을 따라 2~3일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법과 '금어천년옛길 주간'(week)을 정해서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걷기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배치하여 규모는 크지 않아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내실 있는 중소형 축제로 기획한다.
-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축제쿠폰북'은 물론, '맛집투어지도'와 '생태환경학습지도' 등 참가자들과 지역상권이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금정옛길 해설사'의 양성을 통해 길 축제의 방문객수용태세를 강화하고 뜻있는 청년기획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민관의 협업으로 축제를 추진한다.

## ■ 3) 주요내용

## | 프로그램

## ① 역사이야기 투어

- 금정옛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금어천년옛길 곳곳에 남아 있는 금어동천바위와 비석골 등 역사의 흔적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일종의 학습투어
- 주로 평일에는 어린이·청소년 단체(20명 정도)를 중심으로 하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하되 사전신청을 통해 인원과

시간을 적절히 조정 : 금어천년옛길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서 본 축제의 가장 기본이자 골격이 되는 프로그램



## ② 힐링생태 투어

- 대숲길, 크로톤길, 회귀나무, 지장암, 서낭당 등 금어천년옛길의 자연과 사찰 등을 적절히 조합한 걷기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길 안내자는 천년동안 큰 변화 없이 잘 보존되어온 '길'의 소중함과 자연의 상태를 잘 설명하되 참가자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진행
- 참새미(약수터)에서 물 한모금하고 지장암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고 서나당을 지나 등나무군락까지 자연스레 이어져 금정옛길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산을 소개하며 마무리.

## ③ 이야기 공모전

- 금어천년옛길을 소재로 다양한 경험과 상상의 나라를 펼쳐는 이야기 공모전이다. 천년동안이나 지켜지고 존재해 온 길을 소재로 그 길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원천콘텐츠를 모으는 이야기 공모전이다.
- 물론, 꼭 상상 속의 이야기만으로 제한 할 필요는 없다. 참가자들이 현실에서 옛길을 걸으며 느끼고 경험한 것을 수필형식으로 제출해도 좋다.
- 본 축제 전 사전행사로 추진해도 좋고, 축제가 끝난 뒤 사후 행사로 기획해도 좋다. 사후행사에 힘을 쏟는 경우가 드물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금정옛길의 브랜드화를 위한 캠페인의 성격으로 개최할 수 있다.
- 금정옛길 사진전의 작품과 함께 '사진과 이야기'책으로 엮어 1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으로 추진.



## ④ 금정옛길 사진전

- 금정옛길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행사로서 기획하되, 초창기에는 금어천년옛길로 집중하여 이야기축제의 사전 행사로서, 금어천년옛길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는 목표로 추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3~4명 정도 전문사진작가를 섭외하여 일종의 '초대展'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예산과 내용면에서 효율적이다.

- 본 축제 개최 전 금정구청 또는 금정문화회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전시함을 물론, 향후 작품을 이용하여 SNS 홍보, 홈페이지 커버이미지, 축제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하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추진할 시에는 사진과 이야기를 한데 묶어 사진&이야기 공모전으로 추진.

#### ⑤ 금정옛길 이야기콘서트

- 한번쯤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집객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단순한 볼거리나 공연만으로는 '이야기축제'라는 컨셉에 부합할 수 없다. 본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라디오토크쇼 형식으로 기획.
-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시간은 축제 개막일에 개막식을 대체하는 콘텐츠로 추진해도 좋다. 물론, 주말 오후 다수 집객을 목표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장소는 금어천년옛길 코스 중 섭외만 된다면 지장암 앞마당이 제격이다.
-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라디오팟캐스트 중 적합한 방송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공연과 금정옛길에 얹힌 이야기 소개를 적절히 엮고 전문가와 주민, 상인들을 함께 이야기손님으로 초대하여 풍성하게 구성한다.

#### ⑥ 옛길 인문학 특강

- 길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연으로 기존의 실내(강당) 강연행사와는 확고한 차별화 추진. 금어천년옛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물론, 금정옛길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길 속 강연'으로 개최
- 옛길 코스 현장에서 개최되는 야외강연으로 시간은 40분을 넘지 않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동 보드판을 활용하여 금정옛길의 개요와 가치,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 단순 옛길 홍보강연이 되지 않도록 옛길에 녹아 있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많은 이야기를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강연 설계.



#### | 예상 사업비

- 5천만원 추정
- 프로그램, 조직(기획단), 시설(안내 및 안전, 일부 무대 시설), 홍보(SNS 중심), 운영 등
- 타 축제에 비해 콘텐츠 제작비와 하드웨어(장비 및 설비)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 기대효과

- 길의 도시 긍정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천년옛길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잘 보존된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의 홍보를 통해 살고 자연과 역사의 도시로서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 이야기라는 무형의 콘텐츠를 실제 옛길이라는 유형의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지역축제를 창조함으로써 축제의 내실을 다지며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발판 마련.



## 7. 금정비석역사기행

### ■ 1) 제안의 배경

- 황산도를 비롯, 범어사 옛길, 금정산성길 등 옛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금정구에는 옛 자연마을 등지에 선정비나 불망비 등 비석이 꽤 많음. 비석은 숨겨진 지역사를 증언할 뿐더러, 비석 주인공의 스토리텔링 거리를 제공, 문화콘텐츠의 원재료가 되기도 함.
- 비석(碑石)은 고인(故人)의 사적(事蹟)을 칭송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문장을 새겨 넣은 돌을 말한다. 비(碑)·빛돌·석비(石碑) 등 여러 말이 있으며, 거기에 새겨 넣은 글은 금석문(金石文)이라 하여 귀중한 사료(史料)가 된다.

### ■ 2) 기본 개념

- 금정구에 산재한 비석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역사테마기행 프로그램 개발
- 비석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관광자원화를 도모

### ■ 3) 주요 내용

#### ■ 금정 옛길의 비석 기행

- 금정구 지역 황산도 노선(공수물 공원~지경고개)을 비롯, 범어사 옛길, 금정산성길 등에 산재한 비석을 차례로 방문, 지역사 및 인물사를 새롭게 이해
- 전문 해설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해 금정구 비석 기행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면 유익하고 색다른 역사체험이 될 것임.
- 거리가 만만치 않으므로 차량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음

#### ① 부사민영훈거사단

: 동래부사 민영훈의 만민구명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 금정구 부곡2동 공수물 공원에 소재

#### ② 수의상국이공만직영세불망비(繡衣相國李公萬植永世不忘碑)

: 통상 무역의 선구자라 불리는 암행어사 이만직의 업적을 담은 공덕비. 하정마을 입구 위치.

#### ③ 황산이방최연수애홀역졸비(黃山吏房崔延壽愛恤驛卒碑)

: 이방 최연수(崔延壽)가 역졸을 아끼고 보살피는 인격과 덕망이 높아 이방으로 있기에 아깝다는 뜻에서, 소산역과 휴산역의 도장·수리 상관이 1697년(숙종 23)에 세운 송덕비. 하정마을 입구에 있음.

#### ④ 동래부사 정이검·조재민 선정비

: 황산도가 지나는 노포동 금정구민운동장 앞 씀지공원에 세워진 동래부사 정이검, 조재민의 공덕비. 자연석 바위에 나란히 새겨진 마애비였으나 다소 훼손된 채 각각 복원됨.



⑤ 양유하이혜불망비(梁有夏貽惠不忘碑)

: 양산과 부산의 경계인 지경고개 마루에 세워진 서울사람 양유하의 공덕비.

⑥ 범어사 비석골 공덕비 5기

: 범어사 옛길의 참새미와 ‘금어동천’ 바위 사이에 위치. 오른쪽부터 정현덕(鄭顯德), 홍우길(洪祐吉), 조엄(趙.), 정헌교(鄭獻敎), 장호진(張浩鎭) 등 범어사에 대한 지원과 보시로 은덕을 베푼 지방관의 공로를 새김

⑦ 금정산성 부설비

: 1808년(순조 8) 동래부사 오한원이 금정산성 성문과 성곽을 수축하고 세운 비석으로, 현재 장전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2단지 안 쌈지공원에 있다.

⑧ 국청사 정현덕 영세불망비

: 1872년 금정산성 내에 위치한 국청사(금성동 산성마을 위치)에 세워진 동래부사 정현덕의 선정비.

⑨ 별장 김시도 영세불망비

: 금정산성을 둔 금정진의 마지막 별장 김시도가 산성마을 일대의 토지와 관련한 세금을 면해 준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이 1907년 2월 산성마을의 비석골(죽전마을)에 세운 비석.

예상 사업비

- 약 5백만원
- 진행 및 관련 자료집 제작비

기대효과

- 비석의 의미와 가치, 비석이 감춘 지역사, 인물사에 대한 새로운 학습거리 제공
- 타 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역사문화 콘텐츠 확보

## 8. 금정종교문화기행

### ■ 1) 제안의 배경

- 금정구 관내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주목할만한 종교 성지 또는 시설이 산재해 있어 활용할 가치가 있음.
- 한국은 다종교 사회임에도 종교간 마찰이나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임. 종교간 화합과 소통, 평화를 모토로 한 '종교 문화 기행'은 문화적 다원화 및 사회적 다양성 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가 될 것임.

### ■ 2) 기본 개념

- 다종교 체험을 목적으로 금정구 지역에 산재한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

### ■ 3) 주요 내용

#### ■ 자원 현황

- 금정구에는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불교·이슬람교의 중요한 종교 시설이 자리함. 부산 최대의 사찰인 범어사(청룡동)를 비롯해, 천주교 순교자 성지(부곡동,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및 순교자 묘소), 영남지역 유일의 모스크인 한국이슬람부산성원(남산동)이 그것.
- 이들 3대 종교시설 외에도 생활불교 도량으로 대형 불상을 안치한 흥법사(두구동), 간화선 수행도량인 안국선원(남산동)도 있음.





#### 추진 전략

- 기본 코스는 '범어사-이슬람성원-천주교 순교자 성지'로 잡아 세계 3대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종교여행의 묘미를 찾는데 주력함.
- 이동은 도보도 좋으나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기본 코스에 더해 대형 불상 등 볼거리가 있는 흥법사와 도심 수행도량인 안국선원을 포함시켜 콘텐츠를 강화할 수도 있음.
- 각 종교 성지(방문지)에 대한 사전 섭외 통해 직접 설명을 듣는 식으로 답사 효과 제고 필요

#### 예산 사업비

- 약 5백만원
- 진행 및 관련 자료집 제작비

#### 기대효과

- 지역의 종교자산을 활용한 이색 종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음
- 금정구가 종교간 화합,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치구라는 이미지 확보.
- 향후 각 종교기관이 연계해 '세계 3대종교 화합축제'를 열 수도 있을 것임.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9. 금정옛길 아카데미 설립

## ■ 1) 제안의 배경

- 금정구는 옛길과 근현대길, 현대길이 공존하고, 부산에서 옛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임. 지역의 길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정 길 아카데미'를 설립.
- 현대의 길은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미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것이 많은 이슈임. 이 이슈를 선점,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 2) 기본 개념

- 길 걷기를 비롯, 길 건강학, 길 인문학, 길과 사회, 산업적 측면 등을 망라하는 경쟁력 있는 '길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함

## 길(道)이란?

길은 도(道)다. 한자어인 '道'는 책반침(=) 부와 머리 획(수)가 합쳐진 단어다. 책반침은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이니, 道는 '사람이 쉬엄쉬엄 걷는다' 한 줄로 통하는 큰길'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영어로는 도로를 뜻하는 street, way, path가 있고, 차가 다니는 road, way, 자주 지나다녀서 생긴 track이 있다. 길의 기능적 다양성이다.

사전에는 '道'의 의미 및 쓰임새가 무려 28가지로 나온다. 길, 도리(道理), 이치(理致), 재주, 방법 또는 술책, 근원 또는 바탕, 기능 또는 작용, 주의·사상, 제도, 기예, 불교, 승려, 도교(道敎), 도사(道士), 교설(敎說), 행정구역 단위, 완벽한 글이 모두 '도'로 통한다. 동사의 의미로는 통하다(通), 다니다, 가다, 행하다, 따르다, 말하다, 다스리다, 가르치다, 깨닫다, 정통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의존하다 등의 의미를 품는다.

'도'는 딱 한 글자지만, 의미와 쓰임새는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처럼 복잡한 '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걸어야' 한다고 선인들은 말한다.





### ■ 3) 주요내용

- 분기별 커리큘럼을 마련해 전문가 과정, 교양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 커리큘럼은 올바른 걷는 법을 비롯, 길과 건강, 여행, 길 인문학, 길과 산업, 독도법, 길위의 응급처치법, 길과 스토리텔링 등으로 구성
- 전문가 과정은 길 가이드 및 지킴이를 양성하고, 교양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
- 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 포럼'과 '걷기클럽' 조지고 가능
- 하정마을 라키비움에 공간을 확보해 길 아카데미를 개설하면 시너지효과 창출

#### ■ 예산

- 약 1천만원
- 강사비, 교재 개발비, 아카데미 운영비

#### ■ 기대효과

- 시대정신이라 할 '길 걷기' 아이템을 선점, 금정구가 앞서가는 길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보
- 부산시가 추구하는 보행혁신도시의 정책 기류와도 상통해 시비 지원 받는데도 유리
- 이곳에서 양성된 길 가이드 및 지킴이를 금정구 관내의 옛길, 테마길 안내원으로 활용
- 길 포럼, 걷기클럽 조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정구를 '길의 메카'로 만들어갈 수 있음



## 10. 금정옛길 박람회

### ■ 1) 제안의 배경

- 길의 도시 금정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금정옛길에 대한 지역과 언론의 관심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걷기축제와 학술대회, 체험과 참여, 마켓과 네트워크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형 박람회 필요.
- 구청과 전문가, 주민과 지역상권이 함께 힘을 모아 민관 협치의 성공모델로서 추진하고 국비와 시비, 민간협찬과 후원을 유치하여 구비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행사로서 추진.
- 옛길축제도 드물지만 옛길박람회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그 존재감이 충분하고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닌 금정옛길아카데미와 금정옛길포럼 등을 통해 배출한 주민리더들과 옛길해설사들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박람회로 기획
- 담대한 기획을 통해 금정옛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각 코스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국제행사로 육성

### ■ 2) 기본 개념

- 금정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옛길 자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일된 옛길 브랜드로 특화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의 문화·관광콘텐츠로서 박람회 추진
- 도시의 자연자원과 생활문화자원의 적절한 조합과 배치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인 도보여행상품을 박람회라는 특수한 행사를 통해 선보임.
- 기존의 옛길자원들을 박람회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관성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도심 속의 옛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더불어 부산대앞 거리 등 꼭 옛길은 아니지만 쇼핑과 관광이 연결될 수 있는 연계코스의 개발도 함께 추진.
- 걷기축제를 중심으로 하되, 포럼과 세미나 등 학술행사도 개최하여 박람회의 명분을 확보하고 범어사 선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은 물론 다양한 마켓과 부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동아리, 단체, 대학, 기관 등의 역할을 세분하여 유치·섭외.
-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전작업으로서 각 동별 워킹클럽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옛길탐방 프로그램을 추진·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금정옛길의 높은 가치와 가능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함.
- 기간은 최소 1주 최고 10일 정도하여 주말이 2회 정도 겹치도록 추진하고 구간은 금정웰빙 100리길 전체를 산정하되 초창기에는 금어천년옛길과 범어사 12암자길을 기본코스로 하고 금정산성 순리길을 추천코스로,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를 연계코스로 구성하여 대략 1박2일 정도의 걷기코스로 구성.

- 컨퍼런스(학술대회)는 부산대 앞 적정공간에서 개최하여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 연계코스의 홍보는 물론, 지하철역 앞 온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각종 마켓과 연계.

### ■ 3) 주요내용

#### ■ 프로그램

##### ① 걷기축제

- ‘금정웰빙100리길’ 5개 코스 전체를 걷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금어천년옛길과 범어사12암자길을 기본코스로 설정한다. 금정산성 순라길을 추천코스로 설정하여 금어천년옛길 기본코스과 연계하여 진행.
-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와 지하철 부산역/장전역 온천천 일대를 연계코스로 설정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상권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
- 평일과 주말에 각각 코스별 임시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걸으며 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구간 이후 자유시간(해산) 허락하여 각자의 취향에 따라 식사와 티타임, 부대 프로그램(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
- 각 코스의 주요 포스트에는 그 장소(공간)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해설 있도록 구성하고 가능하면 그 장소(공간)의 주요인물이 직접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
- 박람회 첫 개막과 마지막 폐막시에는 대규모의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박람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과 지역상권의 관심을 유도한다. 개막과 폐막 걷기행사의 코스를 차별화하여 금정구의 옛길 자산의 풍부함도 함께 홍보.
- 2019년 10월 개최되는 ATC(Asia Trails Conference) 등 관련행사의 벤치마킹은 물론, 도시의 도보여행상품의 좋은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가사키 사루쿠박람회의 사례로 참고.



##### ② 컨퍼런스

- 전문가 위주의 학술대회 형식을 벗어나 대중적인 강연과 주민토론회, 전문가 발제 등으로 좀 더 역동적인 '회의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금정옛길의 사업화 모델의 발굴과 제안, 지역상권과 주민의 제언, 구청의 문화·관광전략 등 주민주도의 박람회 컨셉에 부합하는 대중적이며 내실 있는 정책컨퍼런스로 추진.
- 장소의 선정과 회의장의 세팅이 중요. 범어사 선문화센터 또는 부산대 앞 박람회와 연계된 적정 회의장소를 선택하되 발제와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함.



### ③ 전시

- 금정옛길 자원의 개요와 의미, 중요성과 풍부함을 보여주는 주제 전시로서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이상의 전시물과 전시구성이 필요.
- 부대전시로서 금정옛길 사진전(공모전과 초대전 등)이 가능하고 '내가 만난 금정옛길'이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한 금정옛길의 이야기를 '금정옛길 스토리展'으로 구현.



### ④ 마켓

- 금정옛길 박람회 기념 프리마켓으로서 수 없이 열리고 있는 기존의 마켓과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
- 옛길 스토리와 옛길 자산을 활용한 아트 상품 판매

### ⑤ 네트워크

- 부산시민걷기동호회, ATC부산집행위원회, 부산길포럼 등 걷기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는 물론, 금정구 내의 워킹 클럽의 조직화, 금어동천이야기페스티벌 청년기획단 등 박람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그룹과의 협업과 네트워크가 가능





## ■ 예상사업비

- 약 2억원
- 걷기축제, 컨퍼런스, 전시, 마켓,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행사를 적정 규모로 추진시
- 국제박람회로 바로 개최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큼. 초창기에는 국내행사로 내실을 다지고 관내 워킹클럽 등 일정 이상 기반 조성되면 3회차 대회부터 국제대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기대효과

-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본격적인 걷기 박람회로서 그 희소성과 존재감이 클 것으로 예상. 특히, 옛길을 소재로 개최 되는만큼 금정옛길의 브랜드화의 비약적 효과가 기대



## 금정옛길의 홍보마케팅 전략

# 마케팅과 지역 마케팅

### ■ 1) 마케팅의 개념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지고, 동일한 시장 내 기업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기업의 경쟁 활동 뿐 아니라 도시나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전이되었다. 각 도시나 지역들은 지역 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케팅은 가치 교환의 과정이다. 미국 마케팅 학회(1985)에서는 마케팅을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를 창안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촉진과 유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목표 시장의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품(재화, 서비스, 아이디어)을 전달하는데, 이를 통해 고객은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되는 가치 교환의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 한다.

마케팅의 주요 요소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그리고 촉진(Promotion)이며, 이는 4P's로 불려진다. 제품은 유형의 재화, 무형의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예인 혹은 스포츠 선수와 같은 인물들 역시 이에 해당된다. 가격은 생산자가 책정한 제품의 객관적인 가치며, 직접적인 수익창출의 요소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얻기 위한 비용(Cost)로 인식될 수 있다. 유통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배포나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촉진에는 제품과 가격 그리고 유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들로 광고, 홍보, 판매촉진, 직접 판매 등이 있다. 이들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고 연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는 제품과 가격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오늘날 마케팅 믹스 중 촉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점차 경쟁 제품 간의 품질과 기능, 가격, 유통의 차이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촉진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무형적 가치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촉진에 포함되는 광고, 홍보, 판매촉진과 인적 판매 등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광고와 홍보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제품 및 기업,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소비자 또는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판매촉진과 인적 판매는 단기적인 판매의 증진을 위해 소비자와 공중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구매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고자 한다.

### ■ 2) 도시·지역 마케팅

마케팅의 개념과 요소를 관광산업 분야에 적용한 것을 관광마케팅 혹은 도시·지역 마케팅이라고 한다. 도시·지역에 대한 마케팅은 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도시와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지역 마케팅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도입 초기 주 로 지역 축제와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도시 마케팅 활동이 전개 되었으며, 관광 목적지 간의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과 차별화를 위한 지역 브랜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도시·지역 마케팅 믹스를 살펴보면, 제품은 유·무형의 관광 대상물이 된다. 지역의 전통시장, 특산물과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뿐 아니라 자연 경관과 기후와 같은 자연적 요소, 해당 지역의 전통 풍습, 축제, 유적지와 같은 역사·

문화적 요소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교통, 숙박시설, 관광단지 등)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광 상품은 일반 소비재 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먼저는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 전에 제품의 모양, 포장, 기능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으나 관광 상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가기 전까지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관광 제품들은 판매와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방문함과 동시에 판매가 되고 즉시 소비가 되며, 동일한 서비스 일지라도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소비자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관광 상품의 두 번째 특징은 하위의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지로서 특정 지역과 도시를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숙소, 방문기간, 활동 내용(휴양, 액티비티, 쇼핑 등)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 이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하위의 의사결정을 위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하여 정보 수집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와 기존 고객의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마케팅의 가격은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상품의 가치로 정의된다. 가격은 관광 상품에 따라 무료일 수도 있으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관광 유통은 관광지역과 관련된 조직과 기업을 관광객과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지역 축제나 관련 여행사를 통해 실행될 수 있다. 관광 촉진은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이미지를 강조한 감성적 단서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공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 도시·지역 마케팅의 4P's

마케팅 믹스	설명	적용
제품	구매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	유·무형의 관광대상물 : 전통시장, 특산물, 자연적 요소(기후, 자연경관 등), 역사·문화적 요소(전통, 축제, 유적지 등), 관광 인프라 등
가격	제품에 부과된 금액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불 하는 가치
유통	제품의 배포와 배치	지역 관광 관련 조직 및 기업과 관광객을 연결 해주는 일련의 과정
촉진	제품 구매를 유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역 광고, PR, 인적판매, 판매 촉진 등 지역 브랜드

도시·지역 마케팅의 촉진 활동 중 광고와 홍보는 지역과 관광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공중의 구매 행동의도를 야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고는 유료의 매체를 사용하여 지역의 조직 및 기업이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TV나 신문 광고, 지역과 관련된 옥외 전광판 및 교통 광고 매체를 활용한다. 홍보는 유료의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관련 기사를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퍼블리시티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지역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촉진은 홍보 활동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지역 마케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관광사업체의 이익 보다 공익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촉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홍보는 일반 공중들과 잠재 관광객들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관광 정보를 신문, TV 등 매스 미디어의 기사와 뉴스 형태로 전달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즉, 잠재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서 해당 지역을 인식시키고 관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지역 행사 및 활동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 금정옛길의 홍보마케팅 전략

#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 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하여 잠재 고객들에게 지역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메시지가 노출이 되더라도 잠재 고객들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와 같이 광고, 홍보,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와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촉진 요소들을 결합하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실현하는 것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하며 도시·지역 마케팅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지난 수 년 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포함한 전통적 매체 외 인터넷, IPTV, 모바일, 버스쉘터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공중 및 잠재 고객에게 지역홍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공중 및 잠재고객의 행동 역시 변화하였는데, 다양한 매체로 전달 받는 메시지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보의 과부하가 생겨나고, 그 전달받은 메시지의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매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과 기업 정보에 있어서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기존 퍼블리시티 중심의 홍보 활동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을 하거나 평판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확장하였으며, 소비자 불만을 처리 하던 콜 센터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비자와의 연결하는 접점이 되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출 증진을 위한 판촉은 소비자들의 제품 및 브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변화된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다.

IMC를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목적인 정보 제공이다. IMC 역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목표 청중이 알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때에는 단순한 내용의 정보 제공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실행되어 온 개별 마케팅 프로그램(광고, 홍보, 판촉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촉진 요소들에서 상충되던 요소나 중복에 의한 낭비를 줄여 시 효과적인 IMC 실행을 위해서는 잠재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매체 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메시지 전달자 중심의 일방적인 설득 방식이 아닌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경험하여 그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관광지의 경우, 잠재 고객이 방문하기 전까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지역 관광지(금정 옛길)가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 가치(역사적 스토리, 옛길 코스의 경험적 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비자들이 지역 관광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편익은 무엇이고 이를 충족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잠재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접점에서의 소비자 경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즉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단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고려한 후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 2) 크로스 미디어 전략

일반적으로 목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미디어 믹스(media mix)라고 한다. 보다 많은 목표 수용자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형태가 다른 채널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각 매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TV의 경우는 15초 동안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주목을 끌 수는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보다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 실행을 위한 매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C 관점에서의 미디어 믹스는 단순한 매체의 나열이 아닌 소비자의 매체를 이용하는 동선을 이해하고 그들이 매체를 이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던킨도너츠의 경우, 자사 매장 내 커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당시, 던킨도너츠는 커피수요가 많은 서울 내 매장에서 커피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피 소비자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커피의 주 소비층이 일반 직장인들이며, 이들은 출퇴근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커피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버스 내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광고를 집행하였으며, 버스 내에는 라디오 광고가 나오면 커피향이 뿜어져 나오도록 디퓨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버스 노선 내 매장이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버스 쉼터에 던킨도너츠 광고를 설치하여 매장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매장 방문객은 16%증가하였고 버스 정류장 근처 매장의 커피 매출은 29%상승하였다. 던킨도너츠 캠페인의 성공 이유는 소비자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인 던킨도너츠에서 커피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커피 판매자로서 던킨도너츠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가 '커피를 마시고 싶더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브랜드 중에 던킨도너츠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커피가 생각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던킨도너츠 커피광고와 커피 향을 매칭하여 소비자들인 자연스럽게 던킨도너츠 커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라디오 광고와 버스 쉼터 광고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목표 소비자들의 동선과 소비자 심리를 고려한 매체 활용의 성공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즉, 제품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쉬운 매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상황과 매체 이용행태를 고려한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의 문화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의 욕구나 필요는 무엇이며, 해당 메시지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DUNKIN' DONUTS**

### Flavor Radio!

Special Radio Advertisement Releasing a Coffee Aroma Via Scent Recognition Technology

**Background & Mission**  
Increase the Dunkin' Donuts coffee consumer base.  
Seoul loves coffee. It's why it's called "The City of Coffee".  
Dunkin' Donuts is more strongly bonded for donuts than coffee.  
This perception leads to coffee brands, releasing other coffee brand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ading role. Dunkin' Donuts is to provide people to select Dunkin' for their coffee too.

**Idea**  
Created coffee aroma atomizers triggered by the Dunkin' Donuts jingle sound.  
Our targets usually commute to work primarily via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So we created a machine that releases a coffee aroma when the Dunkin' Donuts jingle is heard. The machine is installed in buses and is only triggered by the Dunkin' radio ad. People exposed to this special ad are subtly reminded of coffee along with Dunkin', and as a result visit Dunkin' Donuts shops on their way to work.

**Result**

- More than 386,000 people experienced the ad during the campaign.
- Sales increased 16%, Sales of Dunkin' Donuts increased 29% (shops located by bus route).
- People exposed to this advertising are inclined to think Dunkin' Donuts as a coffee "expert".

## 금정옛길의 홍보마케팅 전략 매체 전략

### ■ 1)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매체 목표

마케팅 활동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4P's)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마케팅 믹스 중 촉진은 표적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마케팅에 있어서는 관광 상품 혹은 지역 문화·컨텐츠 상품 등과 관련된 전략적 메시지를 지역 공중과 잠재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메시지 전략과 만들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매체 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궁극적인 목표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이해하고 매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매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케팅 목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매량, 판매액, 점유율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 전의 인지변화(브랜드 인지: '우리의 제품/브랜드를 알고 있는가'), 태도 변화(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우리의 제품/브랜드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행동 변화(구매 의도 형성: '우리의 제품/브랜드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와 같은 표적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노출 시킬 것인지(도달률), 몇 번씩 메시지를 보게 할 것인지(빈도), 어느 기간 동안 노출 시킬 것인지(지속성)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체 목표가 된다.

마케팅 목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매체 목표는 제품의 속성이나 시장 상황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그 목표를 달리 설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 수명주기를 따르게 된다. 먼저, 도입기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도입이 되는 단계로, 신제품을 알리는 것(인지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은 표적 소비자와 의견 선도자에게 제품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매체 목표는 도달률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성장기는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 점차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도입초기 유입된 표적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해 알리고(인지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호의도) 위해 노출 빈도를 중심으로 매체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성숙기는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확립되는 단계로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광고(빈도)가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 쇠퇴기의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필요나 관심이 줄어드는 단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고를 처리하고 시장을 철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철수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도달률에 초점을 맞춘 단기집중 매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 제품수명단계별 목표

제품수명단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제품	제품 인지 구매 시도 창출	시장점유율 극대화	시장점유율유지 이윤 극대화	경비 절감
가격	인지도	인지도, 호의도	브랜드 차별화 상기도 제고	판촉 지원
유통	도달률	빈도	빈도	판촉 지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 선호 및 행동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를 위계효과모형이라 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이르기 까지 제품 인지, 제품에 대한 태도, 행동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는 고관여 모형으로 인지, 태도, 행동의 순서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이 제품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 후 제품의 기능이나 특성에 대해 호의가 형성이 되면 구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관광 상품들 역시 이러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모형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 이 제품에 대해 알 수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도달률과 지속성이 주요 매체 목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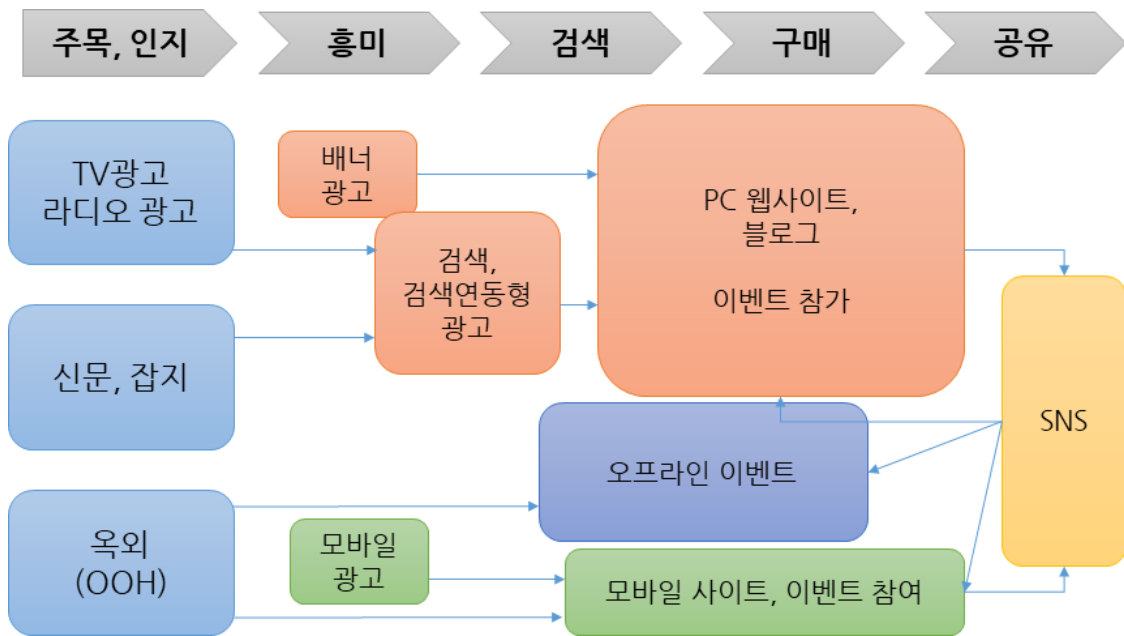
두 번째 모형은 저관여 모형으로 제품인지, 행동 그리고 태도 형성의 단계를 거치는 소비자 행동 모델이다. 주로 세제나 라면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고 소비하는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아 구매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은 제품들에 있어서 기초적인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구매를 하고 제품의 평가를 한 후 재구매 혹은 다른 브랜드로의 이동을 하게 된다. 특정 제품군의 구매에 있어서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기(최초 상기도)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출, 즉 높은 빈도를 매체 목표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모형은 부조화 모형으로 먼저 구매와 같은 행동을 한 뒤 제품에 대한 태도, 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충동구매 모형으로도 불리는 모형으로 감정적 단서들에 의해 구매 행동을 한 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탐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집단에게는 넓은 도달률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제품특성(제품수명주기와 제품 속성) 그리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 모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매체 목표를 수집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금정옛길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로서 이에 대한 공중 및 잠재 관광객의 인지도를 높이고, 꾸준히 이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방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은 감정적 단서(인상적인 사진, 자연 경관 등의 시각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따라서 감정적 단서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매체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 ■ 2)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단계별 매체 활용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따라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선호(Desire), 행동(Action)의 단계로 구분이 된다.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한 필요나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를 문제인식의 단계라고 하며, 이는 소비자의 내부자극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들, 광고 및 홍보물들이 외부 자극물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 자극물에 주목(Attention)하고, '이것이 무엇이지'와 같은 관심/흥미(Interest)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좋아하게 되고(Desire), 최종적으로 구매(Action)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들은 정보의 선택과 매체 활용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행동 모형이 변화되었는데 주목(Attention), 관심/흥미(Interest), 검색(Search), 구매(Action), 공유(Share)행동으로 구분이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과 각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기반으로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매체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체 전략을 수립할 때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와 '메시지 노출 기간과 양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이다.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매체가 무엇이고, 그 매체들의 특장점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매체 목표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TV, 신문, 옥외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고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매체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시각적 자극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구매 이후의 SNS를 통한 자발적인 공유는 또 다른 소비자의 정보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매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매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광고홍보물의 노출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미디어 스케줄 전략이라고 하며, 집중형, 지속형, 파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은 단기간 동안 노출량을 집중하여 노출범위와 노출빈도를 한꺼번에 성취하고자 할 때의 전략으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확실하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신제품이 출시되었거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와 같이 계절성이 뚜렷한 제품에 적용이 된다. 지속형은 연중 내내 광고를 집행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로 성숙기 시장의 제품과 구매주기가 긴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적용이 된다. 파장형은 가장 이상적인 집행 방법으로 연중 내내 일정하게 제품과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노출하여 기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계절적인 특성이나 소비자들의 구매 주기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는 보다 노출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정리해보면, 효과적인 매체 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는 제품생애주기와 같은 시장의 특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모델, 현재 달성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목표 등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택하고 스케줄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금정옛길은 새롭게 도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도입기에 해당되는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상품의 특성과 계절적 수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금정구 옛길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10대 프로젝트

### 지역 마케팅을 위한 매체 활용

오늘날 공중 및 잠재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양 해졌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사용되는 매체는 TV, 신문, 옥외 광고와 같이 매체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되었다(paid media).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들의 발전으로 조직 및 개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공중 및 잠재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를 소유할 수 있으며(owned media), 이러한 매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earned media). 이는 페이드 미디어(paid media), 온드 미디어(owned media), 언드 미디어(earned media)로 불린다. 페이드 미디어는 매체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매체로 TV 광고, 신문광고, 인터넷의 배너 광고 등이 포함이 된다. 이러한 매체들은 동시에 많은 표적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메시지 전달자가 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온드 미디어는 조직 및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계정이 된다. 페이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온드 미디어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를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 및 개인이 소유한 매체로 비용의 효율성을 갖게 된다. 언드 미디어는 조직이나 개인이 아닌 제3자(기자,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가 생산하고 발신하는 미디어로 소비자들의 후기나 댓글도 포함이 된다. 제3자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메시지의 수용자 입장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료 매체를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온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보다 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매체 유형

유형	정의	예	기대효과	고려사항
Paid Media	매체 사용료를 지불하는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메시지 통제가능, 즉시성	광고 혼잡도 낮은 반응을
Owned Media	기관이 보유한 매체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컨트롤 용이, 비용 효율성, 긴 수명	메시지 노출 및 도달률의 제한
Earned Media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매체	블로그나 SNS의 Follower들의 SNS	높은 신뢰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	메시지 통제 불가, 네거티브 반응 가능성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품 및 메시지와의 어울림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지역의 관광문화 콘텐츠 상품은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구매 이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정보 탐색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자신이 신뢰하는 정보원으로 부터의 구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를 중시하는 제품인 동시에 감정적 자극 또한 중요한 상품이다. 공중 및 잠재 고객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 단서들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메시지 수용자들의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금정옛길이 신규 문화컨텐츠로 도입이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중 및 잠재 고객들에게 금정옛길이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노출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 목적지로서의 관심과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품 및 메시지와 어울림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지역의 관광문화 콘텐츠 상품은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구매 이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정보 탐색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자신이 신뢰하는 정보원으로 부터의 구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를 중시하는 제품인 동시에 감정적 자극 또한 중요한 상품이다. 공중 및 잠재 고객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 단서들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메시지 수용자들의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금정옛길이 신규 문화컨텐츠로 도입이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중 및 잠재 고객들에게 금정옛길이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노출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 목적지로서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단서들과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정옛길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문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메시지화 되어 자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홍보 형태의 퍼블리시티와 관광 목적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옥외 광고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옥외 광고 중 교통 광고의 경우, 넓은 지역에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금정옛길 인근의 버스 쉼터나 지하철역을 선택하여 노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해 광고물을 크게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이나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어 공중 및 잠재고객의 주의를 끌기 쉽다.

그리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최근 급속하게 이용자의 수가 늘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규모는 광고홍보물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공중 및 잠재고객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조직 및 개인은 공중 및 잠재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SNS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과 관련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관광청 혹은 제3자의 SNS를 통하여 관광목적지에 대한 시각적 자극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계획 단계에 있어서 온라인 정보를 검색할 때 주요 정보원으로 SNS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여행자들에 의해 생성된 후기와 같은 정보는 보다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인식하여 의사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예약이나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방문하거나 지역의 문화컨텐츠를 소비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하여 다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금정옛길의 문화컨텐츠를 알리고 공중 및 잠재고객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SNS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있으며, 이들은 콘텐츠의 생산 및 공유, 소통 그리고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공개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상태 메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포함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페이스북 내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타인의 페이지를 팔로우(Follow)함으로써 친구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뉴스피드를 구독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공감) 상태를 나타내는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댓글달기’를 통하여 콘텐츠 혹은 작성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하기’를 클릭하여 타인의 포스트를 자신의 페이지 내에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페이스북 인적 네트워크에게 재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10년 등장한 이후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정방형 크기의 사진과 해시태그(hashtag, #)를 생성하고 이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 콘텐츠 중심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글 없이 게재할 수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즉각적으로 이미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은 2012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플랫폼 내 하나의 서비스 형태도 등장하였다. 카카오톡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메신저 상의 개인 프로필 사진과 연동되며,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사용자들의 인맥을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SNS플랫폼 별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운영 SNS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SNS를 사용할 것인지, 각 SNS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고려한 뒤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기능	SNS 플랫폼 예
프로필 기반	특정 사용자나 분야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서비스 개인의 관심사 등 프로필 생성	싸이월드,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카카오토리
비즈니스 기반	업무나 사업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서비스	링크드인, 링크나우
블로그 기반	개인미디어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네이트통, 원도우라이브스페이스
버티컬	사진, 비즈니스, 게임, 음악, 위치 정보 등 특정 형태, 혹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서비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포스퀘어
협업 기반	공동 창작기반의 서비스	위키디피아
커뮤니케이션 중심	채팅, 메일, 동영상 등 사용자 간 연결 커뮤니케이션 중심	네이트온, 카카오톡
마이크로블로깅	일상적이고, 간단한 내용을 짧은 단문형 텍스트를 작성하여 공유	트위터, 미투데이



## 금정옛길의 홍보마케팅 전략

### 지역 마케팅 및 매체를 활용한 사례

#### ■ 1) 옥외 매체를 활용한 사례

##### ① 소비자 경험을 위한 버스쉼터

버스정류장의 버스쉼터는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큰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 및 잠재고객이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이다. 버스쉼터 광고 대행사인 JC데코(JCDecaux)는 버스쉼터에 과자의 광고물과 함께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과자를 광고하였다. 버스쉼터에 설치된 디스펜서에서는 냄새를 퍼뜨리는 분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막 구워낸 과자 향기를 뿜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버스쉼터광고의 버튼을 누르면 소포장된 과자를 제공하여 이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줄을 서기도 하였다.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버스쉼터 광고에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무료 과자를 제공함으로써 주의를 끌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동 중에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작은 간식을 버스정류장이라는 적절한 곳에 노출을 하여 소비자들이 기억과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브랜드의 리포지셔닝을 위해 실시된 이 캠페인은 버스쉼터 광고가 단순히 인쇄광고물을 부착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제품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다.



##### ② 지역 관광지 개발에 따른 부정적 이슈 발생을 대비한 공공 캠페인 진행

지역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기존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로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한옥 마을이 관광지화 되면서 외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와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를 결심하기도 한다. 지역 관공서에서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원과 쓰레기 투기 금지 및 소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런던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사람들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예방하고 공중도덕의 향상을 위해 런던교통국에서는 'Together for London'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주제는 '우리 각자의 작은 배려가 모두를 위한 큰 차이를 만듭니다.'이며, 따분할 수도 있는 캠페인을 친근감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세부 내용은 자리 양보와 음악을 크게 듣지 않는 것,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정옛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활용하여 옛길코스를 안내하거나 옛길 방문 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2) 온라인 매체의 활용

공중 및 잠재 고객들이 금정옛길에 대한 정보 탐색과 방문 후 공유, 그리고 방문자의 후기에 대한 검색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공식 SNS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Knorr SideKicks(즉석식품) Salty's Life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석 식품 회사인 Knorr Side-Kicks는 간편식의 나트륨 함량을 낮춰 제품을 출시하였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을 소개하면서 'Salty'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신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소금이 담겨있는 양념통을 'Salty'로 의인화한 이 캐릭터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정기적으로 Salty의 하루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AYTkn1w8HUI>)에 공유하여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기존 대비 나트륨 함량이 25%가 줄었다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Salty'의 스토리를 만듦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alty' 캐릭터를 인쇄광고에도 함께 노출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친근하고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각국의 관광청 공식 페이스북 팬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 일본과 홍콩의 아시아는 세계 주요 관광목적지에 포함이 된다. 이들 나라의 관광과 관련된 국가기관들은 페이스북 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구가의 자연 자원(날씨, 해변, 풍경 등), 관광 인프라(공항, 교통, 호텔, 레스토랑, 관광 센터 등), 문화역사예술 자원(박물관, 축제, 종교 사적 등), 치안과 정치적 안정성, 음식이나 요리법과 같은 음식문화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전달한다. 또한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들의 시각적 주의를 끌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감정적 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요약 및 정책 제안

# 요약 및 정책 건의

-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옛길 자원과 이야기거리를 가장 풍성하게 안고 있는 지역임. 조선시대 황산도(영남대로)의 메인 루트가 금정구를 거쳐갔고, 동래부에 위치한 2개의 역참 중 한 곳(소산역, 현 하정마을)이 금정구에 자리했음.
- 황산도의 지선이라 할 수 있는 범어사 옛길, 회동수원지 길, 금정산성 길 등도 금정구의 소중한 옛길 자산임. 이들 옛길을 증언하는 비석이나 자취, 이야기거리도 곳곳에 산재. 하나의 예로 부곡동의 '기찰(讞察)'은 옛길을 증언하는 살아 숨쉬는 지명임.
- 여기에 더해 금정구는 수려한 금정산과 윤산, 회동수원지, 온천천 등을 안은데다, 금정산성, 범어사, 흥법사, 한국순교자박물관 등 자연·문화·종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길의 도시' '길의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춤.
- [금정구 옛길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제시,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함.

### ■ 1) 사업 추진 우선 순위

#### ① [금정 웰빙 100리 길] 구축

- '길의 도시 금정을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금정구의 산, 호수, 하천을 아우르는 보행길의 틀을 구축.
- 금정산성 동문 고개에서 범어사, 회동수원지, 윤산, 온천천까지 이어지며 전체 거리는 40.3km(약 100리)임. 이 속에 △금어천년 옛길 △범어사 11암자길 △금정산성 순라길 △기찰 테마길 △하정마을길이 구간별로 포함됨.
- 금어천년 옛길과 범어사 11암자길은 준공을 앞둔 '범어사 선문화센터'와 연계 전략 필요
- [금정 웰빙 100리길]은 틀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실제 사업은 별도로 진행

#### ② [하정마을 역촌(驛村) 복원] 사업

- 이번 연구 용역의 핵심 제안 사업임
- 조선시대 황산도의 주요 역참인 '소산역(蘇山驛)'이 자리했던 금정구 하정마을을 길과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역사문화마을로 복원.
- 세부 사업은 크게 세가지. △부산도시철도 남산역~하정마을~회동수원지 상현마을 연결 '하정마을길' 개발 △하정마을에 전시관·박물관·도서관·카페를 겸한 '옛길 라키비움' 조성 △하정마을 입구 비석거리 조성임.
- 하정마을 라키비움은 '길의 도시' 금정구의 여행 거점이면서 비전을 담은 사업임. 향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국·시비 유치에 나서야 함.

#### ③ [기찰 CIQ 체험관] 조성

- 금정구 부곡동 기찰마을은 과거 황산도의 검문소가 있었던 곳임. 이곳에 현대적 의미로 '기찰 CIQ 체험관' 조성, 옛길 문화관광 자원화함
- 금정 옛길 투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만남의 광장을 거쳐 하정마을 상현마을 오류동을 돌아 다시 기찰삼거리로 돌아오는 역사 투어의 거점으로 활용



- ‘기차포교’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차 사진관, 기차 의상실, 기차 검문소, 기차 갤러리 등 다양한 구성과 기차포교 체험, 과거길 체험 등 추진

※CIQ: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 ④ [금어동천 이야기 페스티벌]

- 금정구의 옛길 자산 중 천년 넘게 이어지면서 원형이나 유산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범어사 옛길(금어천년 옛길)’에서 소담하고 흥미로운 축제를 기획
- 천년 옛길의 역사적 상징물인 ‘금어동천’ 바위를 활용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 콘텐츠 개발은 물론, ‘금어천년 옛길’ 전반에 얹힌 전설, 설화, 인물, 사건, 공간, 나무, 바위, 비석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원천을 발굴, 공유하는 컨셉으로 추진
- 다중집합 형식의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길을 걸으며 보고 듣고 즐기며 쉬와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체험과 학습, 힐링형 트래킹 축제로 구성.
- 형식을 파괴해 1~2주간 ‘금어천년 옛길 주간’(week)을 정해 열수도 있음

#### ⑤ [금정옛길 박람회]

- 길의 도시 금정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금정옛길에 대한 지역과 언론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 축제형 박람회 기획.
- 담대한 기획을 통해 금정옛길의 존재를 알리고, 각 코스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 기존의 옛길 자원들을 박람회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관성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도심 속 옛길 관광상품으로 개발. 더불어 부산대앞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심 보행길로도 연결될 수 있게 연계코스도 개발
- 기간은 최소 1주 정도로 하고, ‘금정웰빙 100리길’ 전체를 설정하되, 초창기에는 금어천년 옛길과 범어사 12암자길을 기본 코스로 하고, 금정산성 순라길을 추천코스로,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를 연계코스로 구성

#### ⑥ [금정 역사인물 웹툰 북]

- 금정구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차별성과 상징성을 갖춘 역사 인물이 꽤 있으나, 대부분 조명이 안돼 있음. 모바일 시대에 웹툰은 시민과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며 소비하는 웹 형식의 만화 장르임.
- 금정구와 연관이 있는 조엄(통신사 정사), 최연수(황산도 이방), 이만직(암행어사), 김정한(소설가), 정이검(동래부사), 조재민(동래부사) 등 7명을 선정해 각 인물당 A4용지 기준 20쪽씩, 총 140쪽 가량의 ‘금정 인물 웹툰 북’을 제작.

#### ⑦ [금정 길 아카데미] 설립

- ‘길의 도시’ 금정구의 문화콘텐츠를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문화 교육 관광 인프라로 추진.
- 길 걷기를 비롯, 길 건강학, 길 인문학, 길과 사회, 산업적 측면 등을 망라하는 경쟁력 있는 ‘길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함
- 향후 하정마을 옛길 라키비움이 설립되면, 그곳을 무대로 교육, 운영, 관리, 홍보 프로그램 수립

#### ⑧ [금정옛길 스토리 북] & [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 관광은 지도와 스토리북에서 출발함. ‘금정웰빙 100리길’을 일목요연하고 흥미진진하게 정리, 요약해 보여주는 책자와 지도가 필요
- 책자와 지도가 제작되면, 부산관광공사 등 주요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적극 홍보
- 보행길 및 탐방로 뿐만 아니라, 금정구의 명소 명물,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 카페 등도 소개

## ■ 2) 사업 추진 위한 국·시비 확보 방안

### 국비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산림청 등의 주요 공모사업 노크
- [하정마을 옛길 라키비움]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인맥을 적극 활용, 기획 사업으로 제안할 수도 있음
- 2020년도 예상 보행 관련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2020년 예산 (국비, 억원)	담당부서
지역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0.9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3)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4(2)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5)
걷기 여행길(해파랑길)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5)

- 2020년도 예상 보행 관련 사업(한국관광공사)

사업명	2020년 예산 (국비, 억원)	담당부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3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	지역명소육성팀 (033-738-3637)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4(2)	국민관광복지팀 (02-729-9322)

### 시비

- 추진 상황
  - 부산시는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 수행을 위해 부산시는 2022년까지 총 1조 837억 원을 투입키로 했음. 전례없는 예산 규모임.
  - 2019년도 부산시 보행예산 예산 1,432억 원 가운데 공원일몰제 사업 997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예산은 435억 원 (신규 215억 원, 계속 219억 원). 2018년 대비 424%가 늘어남.
- 2020년도 예상 보행 관련 사업(부산시 자료 참고)

사업명	2020년 예산 (국비, 억원)	담당부서
걷고싶은 동네 한바퀴 (마실길)	70	자치행정과
블루그린 네트워크 사업 (도심 숲길)	90(45)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	60(45)	자치행정과
걷기 테마관광코스 운영	4	관광정책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50(25)	녹색도시기획단



발 행 일 2019.9.23

책임연구원 박창희 스토리랩 수작 대표

주임연구원 성현무 지식문화콘텐츠연구소(주)Limen 대표

공동연구원 임지은 고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이준호 사회적기업 디자인디 대표

※ 이 책은 2019년 [금정옛길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적재와 복제를 금합니다